

캔사스 시티 코리안 저널
KANSAS CITY
KOREAN JOURNAL



HAPPY NEW YEAR!!

01 월

2020
JANUARY



Dr. Kyunghwan An
 Adjustments 교정, Acupuncture 침
 Adjustments & Acupuncture
 척추교정 & 침
 Unlimited Chiropractic Care

Grandview Chiropractic & Acupuncture Clinic
 12121 Blue Ridge Blvd., Suite A, Grandview, MO 64030
 Phone number: 816-217-0020

Serving Kansas and Missouri Home Owners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Kay K Mun 문경환

913.251.7871 or 562.260.1119
 Re/Max Best Associates
 Broker Associate




INSURANCE AGENT
 보험 전문인
 이 리사 (Lisa Lee Moran)

913-217-5169
 Lisa@AutoHomeKC.Com

자동차. 주택. 사업. 생명. 메디케어 플랜
 AUTO. HOME. BUSINESS. LIFE
 MEDICARE HEALTH PLAN

Lisa
 7180 W 107TH ST., #10, OVERLAND PARK, KS 66212

platinum realty **BIZPRO** Realty Group LLC

김준수 세무 회계 부동산

세무 회계 부동산 종합 관리 시스템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와 재산 관리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 드립니다.

JUNSU KIM, CPA, EA, MSA, REALTOR
 10322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12
 T.913-383-8558 / F.913-815-8810 / INFO@BIZPROKC.COM



KANSAS ACUPUNCTURE & CHIROPRACTIC CLINIC
 7050 W 105th St. Overland Park, Kansas 66212

Dr. Taejeon Shin
 D.C., M.S., L.Ac, Dipl O.M.

P) 913-649-2044
 F) 913-649-2064
 www.kacclinic.com
 kacclinic@gmail.com



BlueCross BlueShield VA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UTO ACCIDENT SPECIALIST

로한 척추신경 & 침술클리닉

아름다운 중심을 잡습니다



교통사고

운동상해

디스크 질환

어깨질환

임산부 교정

메디컬 마사지

디지털 X-ray

상담해드립니다.

- ✓ 학생 보험 및 각종 보험
- ✓ 무보험자 할인 혜택
- ✓ 교통사고와 직장에서의 사고는 환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LohanChiro

교통사고 대처요령

- 1 사고 후 통증 발생 시, 911전화
- 2 상대방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카드 (이름, Policy#, 자동차 Year, Make, Model) 운전 면허증, 자동차 번호판의 정보를 확보
- 3 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으로 사고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알 수 있게 현장 촬영 (전체 환경을 다 포함한 사진- 신호체계, 몇 차선 도로, 스탱 사진 여부, 차량 번호판)
- 4 상대방이 전적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시 차량 제공



Lohan Clinic
South KC Office
816-444-1218 ext.1



Lohan Clinic
South KC Office
816-444-1218 ext.1



Lohan Clinic
Skin & Massage
816-444-1218 ext.3



자매병원
Grandview Clinic
816-217-0020

404 E. Bannister Rd. Suite C Kansas City, MO 64131



로한 스킨 클리닉

f #LohanSkin

동안 관리

여드름 관리

얼굴 경락

미백 관리

리프팅 | 탄력

노화 방지

얼굴 경락은 막힌 피부를 풀어 괴사된 세포 및 유해한 독소 등이 림프에 의해 체외로 배출되면서 피부에 산소포화도가 높아져 혈기가 좋아지게 합니다.



Jet Clear는 강력한 압력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피부와 두피에 물 입자를 분사해 피부 부위를 세정하거나 영양 물질 화장수를 도포하여 모공청소, 각질제거, 미백, 여드름, 그리고 턱선과 눈가에 주름개선 및 탄력에 효과적이며 얼굴에 축적되어있는 유해한 독소를 제거해주는 최신장비입니다.

✓ **바디** 전신마사지 서비스도 있습니다.



www.lohanskin.com

교통사고 전문 클리닉

*NEW PATIENT ONLY

***새해 1월 16일 목요일 무료진료!!**

치료 잘하기로 소문난 곳!!
자신 있게 공지 합니다!

816 - 444 - 1218

교통사고, 통증 및 만성질환



척추신경의 홍성민

척추교정

침



스트레칭

운동치료



물리치료

뜸/부황

◆ 목차 / READER'S GUIDE

◆ 커뮤니티 / COMMUNITY	PG 6-13	◆ 사업 / BUSINESS	PG 22-23
◆ 캔사스 소식 / LOCAL NEWS	PG	◆ 경제 / ECONOMY	PG 24-25
◆ 디렉토리 / DIRECTORY	PG 16-17	◆ 스포츠 / SPORTS	PG 26-27
◆ WELLNESS	PG 14-15	◆ 믿음 / FAITH	N/A
◆ 세계 뉴스 / WORLD NEWS	PG 18-21	◆ 문화와 생활 / CULTURE & LIFESTYLE	PG 28-29
		◆ 무료 광고 / CLASSIFIEDS	PG 30-31

◆ 일반 및 광고 연락처 / GENERAL AND ADVERTISING CONTACT

Email: kim@kckoreanjournal.com Phone: 913-802-2005
ONE.FIVE Media LLC : Kansas City Korean Journal

(여러분의 광고를 소중히 여깁니다. 캔사스의 유일한 한인신문 KCKJ로 연락주세요. 한인특별가로 모십니다!)

편집자 주 / EDITOR'S NOTE

- 모든 칼럼의 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본은 요약본이며, 외부필자의 원고는 신문사 편집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ll translations of the columns are done in summary form. The opinions, beliefs, and viewpoints expressed by the contributing writers may not reflect the opinions, beliefs, and viewpoints of KCKJ.
 - Korean Translator and Editor: Chaeyoung Kang
-
- 캔사스시티 코리안 저널의 (연합 뉴스)로 표기된 모든 기사의 발신지와 저작권자는 연합뉴스이며, 무단전재나 재배포를 절대 금합니다.
 1. 연합 뉴스 - (기사발신지=연합뉴스)
 2. 저작권문구 <저작권자 (C)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The source and copyright holder of all articles marked as Associated Press (AP) in Kansas City Korean Journal is AP News(AP), reprinting or distributing without permission is strongly prohibited.
 1. AP - (Article Source Reuters)
 2. The copyright notice <copyright (C) AP All Rights Reserved - Copyright by>
 - 마감일을 넘겨오는 기사나 광고는 부득이하게 다음호로 놓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저희 신문의 수정 사항을 언제든지 알려주시요. 여러분의 지적을 귀하게 받아 더욱 발전하는신문이 되고자 합니다.
보내실곳은 kim@kckoreanjournal.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If you find any information in error, please direct them to kim@kckoreanjournal.com Thank you.

JANUARY CALENDAR OF EVENTS

January 1: Happy New Year's

January 3: Kansas City eSports Expo: January 3, 2020 @ 2:00 pm - January 5, 2020 @ 7:00 pm, Overland Park Convention Center, 6000 College Blvd, Overland Park, KS

January 4: KC Perfect Wedding Guide, 2020 Wedding Show: January 4 - January 5, 10:00 AM to 4:00 PM, Kansas City Convention Center, 301 W 13th St, #100 Kansas City, MO 64105

January 9: Kansas City Boat & Sport Show: January 9 - January 12, Bartle Hall, 301 W 13th St, Kansas City, MO

January 10: KC CLASSIC INVITATIONAL "AMERICAN PRINCESS": Jan 10, 2020 - Jan 12, 2020, All Day, HY-VEE Arena, 1800 Genessee St Kansas City, MO 64102 United States

January 10: Restaurant Week: January 10 - January 19, Participating KC restaurants.

January 12: 캔사시티 한인회 신년하례회: Kansas Mission Church,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Ks.

January 15: Farmcon 2020: Jan 15, 2020, 1 PM - Jan 16, 2020, 6 PM, Kansas City Marriott Downtown, 200 W 12th St, Kansas City, MO

January 15: PJ MASKS SAVE THE DAY LIVE!: 07:00 PM Carlsen Center: 12345 College Blvd, Overland Park Overland Park, KS 66210 United States

January 16: Mid-America RV Show: January 16 - January 19, From 10 AM - 7 PM,

The Kansas City Convention Center, 301 W 13th St #100, Kansas City, MO

January 17: Monster Jam: January 17 - January 19, Friday @ 09:00PM, Saturday and Sunday @ 01:00PM, Sprint Center, 1407 Grand Blvd, Kansas City, MO

January 18: In Love Premier Wedding Event | Kansas City, Missouri: From 12:00 PM - 05:00 PM, Sheraton Kansas City Hotel at Crown Center, 2345 McGee St, Kansas City, MO

January 23: Overland Park Boat Show 2020: January 23 - January 27, Overland Park Convention Center, 6000 College Blvd, Overland Park, KS 66211

January 24: Kansas City Royals FanFest: January 24 - January 25, From: 12:00 PM - 09:00 PM, Bartle Hall, 301 W 13th St, Kansas City, MO

January 25: Lunar New Year

January 31: Cirque Du Soleil - AXEL: January 31 - February 2, Starts at 6:30 PM, Sprint Center, 1407 Grand Blvd, Kansas City, MO

January 31: 2020 Good Living KC Expo: Jan 31, 2020, 3 PM - Feb 1, 2020, 6 PM, Overland Park Convention Center, 6000 College Blvd, Overland Park, KS

January 31: KANSAS CITY REMODEL + GARDEN SHOW: Jan 31, 2020, 10 AM - Feb 2, 2020, 5 AM, American Royal Association, 1701 American Royal Ct, Kansas City, MO



STAR BEAUTY is looking for a STORE MANAGER

- Competitive pay weekly wage (\$700-\$1000)
- Growth opportunity
- Green card sponsor available

Requirements

- Positive attitudes
- Right work ethics
- Managerial skills
- Sincerity/passion
- Must speak English fluently

Please bring your resume to our store

13300 W 87th St Pkwy
Lenexa, KS 66215

or call 816-931-4747

and ask for John more information



2020

**캔사스시티 한인회
신년하례회**

2020년 1월 12일 (일) 오후 3시

캔사스 선교교회 Kansas Mission Church

8841 Glenwood St. Oerland Park, KS



2015년 12월

낮선 땅 쿠바에서 재미교포 변호사 전후석이 만난 고레아노 이야기

체 게바라, 피델 카스트로와 어깨를 나란히 한 쿠바 혁명의 주역이자 쿠바 한인들의 정신적 지주 헤로니모.

쿠바 한인들과 매 끼니 쌀 한 숟가락씩 모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독립 자금을 보낸 독립운동가, 헤로니모의 아버지 임천택. 조국의 땅을 밟아본 적 없는 그들이 100년 넘게 이어 온 고레아노의 정신.

2019년 11월

다큐멘터리 감독 전후석이 전하는 그들의 꿈이 스크린에 펼쳐집니다.

신년 하례행사

영화 상영
"헤로니모"

만찬

세미나

KANSAS CITY
KOREAN JOURNAL

JANUARY 2020
VOL #63 \$3.95

Breaking news online
kckoreanjournal.com



/ kckoreanjournal



KANSAS YOUTH CHAMBER ORCHESTRA CHRISTMAS MINI CONCERT AT TOWN VILLAGE OF LEAWOOD

캔사스시티의 한인 청소년들로 구성된 Kansas Youth Chamber Orchestra(지휘: 이정환 Junghwan Lee)의 크리스마스 미니 콘서트(지난 12월 14일(토) 오전 9시, Town Village of Leawood 양로원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미니 콘서트는 지역 사회를 위한 5번째 연주회였으며 특별히 크리스마스 캐롤들로 구성되었습니다. (1. Silent Night, Holy Night, 2. Christmas Duets, 3. Mary, Did you know?, 4. My Heart Will Go On, 5. Carol of the Bells, 6.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7. Chestnuts Roasting



On an Open Fire, 8. Love Affair, 9. LA LA LAND) 공연을 보신 어르신들께서는 너무 좋은 연주였다고 오케스트라 단원들한테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고,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뜻깊은 연주를 할 수 있어서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양로원 공연 사진)

Kansas Youth Chamber Orchestra는 지난 캔사스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행사 때에도 특별 공연 팀으로 첫번째 순서를 맡아 연주함으로써 1세대와 2세대를 아우르는 교량의 역할을 감당

할 수 있었습니다. (100주년 기념 행사 사진)

Kansas Youth Chamber Orchestra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구성되어 있는 한인 청소년 오케스트라팀으로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15분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본당에서 연주가 진행됩니다. 이번이 3번째 학기로 매 학기마다 1~2회 봉사 연주가 있으며 지역 사회에 있는 양로원 또는 한인회 행사 등에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유스 오케스트라의 연주회를 통하여 후원받은 금액 전부를 아



이티(Haiti)에 있는 음악학교에 전달하였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캔사스 유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2020년 봄학기 시작은 1월 25일 토요일부터이며 새롭게 오케스트라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클라리넷, 플룻,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은 1월 25일 토요일 오디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케스트라 총무 강병찬(913-907-9414, ckumcmmedia@gmail.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강병찬 유스 오케스트라 총무 (Byungchan Kang)

캔사스시티 시니어 선교회 회장 인사말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따뜻한 여름이 어느덧 지나고 하얀 눈을 그리며 맞이 하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모든 동포 여러분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소망의 한 해를 준비하시는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캔사스 시니어 선교회는 2019년 7월4일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선교회는 대한민국의 “시니어 선교한국”을 벤치마킹하여 캔사스시티 시니어들을 섬기는 예수중심 원탁모임이며 천국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시니어들과 함께 하는 단체가 되고자 합니다.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기량과 전문적인 기술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우며 캔사스시티 시니어 세우기에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15일

캔사스시티 시니어 선교회 회장 송지영 드림

비전: 캔사스시티 시니어 세우기
사명선언문: 예수중심 원탁모임으로 함께 성장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기뻐하는것

핵심가치: 삼상 15:22 순종; 갈 2:20 믿음; 시편27:4 성전에서 사모하는것

조직: (회장) 송지영, (부회장)독고영식장로, 정판조장로, (상임총무) 우인균목사



좌로부터 문경환, 정판조, 송지영, 독고영식, 우인균

사회/community 란에 다름과 같이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캔사스시티 시니어선교회(SMK) (회장: 송지영) 913-220-7927 (총무: 우인균 목사) 816-518-6766 woinkyun@gmail.com

2019 캔사스시티 한인회

올해 캔사스시티 한인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임원들을 소개합니다



회장 안경호



수석부회장 김준수



부회장 윤정재



사무총장 이주현



여성위원회 은영영



여성위원회 유갑무



보도위원회 안향미



보도위원회 이지형



보도위원회 정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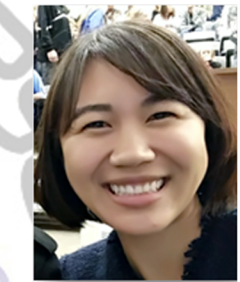
사회봉사위원회 최성용



홍보위원회 조은경



홍보위원회 신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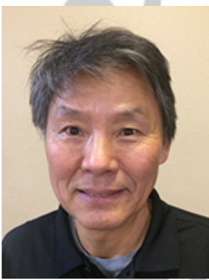
행사준비위원회 유혜란



행사준비위원회 김창근



행사준비위원회 황예슬



재산관리위원회 김병철



청년위원회 김성일



청년위원회 김경민



재무분과위원회 김현영



체육위원회 윤태석



체육위원회 박순현



대외협력위원회 John



대외협력위원회 양혜연



대외협력위원회 유하나



미디어개발위원회 오승현



미디어개발위원회 박귀우



기관단체위원회 문경환



기관단체위원회 정원화



기획행정위원회 지형준



기획행정위원회 김준환



역사관 전시팀 소개

김소라

정진미

김명근

송진희

유하나

장보혜

레이놀드 은영

맥다니엘 제이미

이재혁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설립 40주년 특별 연재: 나의 사랑 한국학교 2020년 새해, 설레는 만남

독고영식

마흔살의 한국학교를 바라보며 1980년 2월에 캔사스시티 한국학교(이하 한국학교)를 Kansas 주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게 되면서 꾸준한 성장하는 가운데 위태로운 위기와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 가면서 오늘에 이르러 "한국학교 개교 40주년"을 맞이한 한국학교가 자랑스롭습니다. 본인 또한 한국학교에 5년동안 몸 담으며 젊은 시절 신명을 바쳐 열정을 다 했던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감회를 느끼며 동시에 함께 수고하며 섬겨주셨던 모든 분들께 가슴으로 부터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때의 수많은 즐겁고 보람있는 기억들이 떠오르지만 허락된 지면상 그 중 몇 가지만 아래에 적어 봅니다.



"생희장학회" 모금음악회.... 1996년 한국학교는 Shawnee Mission West High School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약 90여 명의 학생 (이민 1세대의 자녀들), 교사, 이사회로 구성되었는데 학교운영이 이사회비와 후원회 기부금, 저렴한 학생들의 수업료만으로는 학교재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초대 이사장 및 교장이셨던 고 Dr. 이생희를 기념한 "생희 장학회"를 설립하기로 이사회가 의결한 후 Blue Valley North High School에서 11월 2일 설립 기금을 \$10,000 목표로한 음악회

를 기획하여 조영애 전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총동원되어 어린이 합창단, 오케스트라, 부채춤, 어머니 합창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시카고 중서부 한국학교 협의회장이신 박규영교수께서 오셔서 축하해주시며 한국학교의 실력이 최고라며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캔사스지역 목회자 협의회의원인 철목사님, 차명훈목사님, 김종욱목사님 세 분의 특별출연 (중창)은 범 교회적인 지원과 함께 한국학교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박선희 학부모장의 지도를 받은 부채춤 학생들은 "KU 한국의 밤" 행사에 초청되어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이 결과 "생희장학회" 목표액 \$10,000을 초과한 \$12,500이 모금되었고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한국의 문화와 한글을 폭 넓게 알리기 위하여 타민족/외국인(지금의 KSL)에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우리 자녀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주는 기본 뜻을 바탕으로 "생희 장학회" 기금 수여는 현재까지도 한국학교 학기가 마치는 종강식에 이루어 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식과 여름캠프 상록회 잔치 행사들....

97년 5월 제 3회, 99년 5월 제 4회 한국학교 졸업식: 졸업기준을 7학년 이상, 3년 한국학교 출석, 졸업시험, 에세이, 모든과정을 거쳐야 졸업을 할 수 있었고, 졸업생들은 졸업 후 보조교사로 활동도 하여 교사와 배우는 어린 학생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97년 7월 한국학교 여름캠프(미국 장로교 수양관 3박4일): 미국 학교 방학기간을 통해 집을 떠나 한국 친구들과 함께 공동생활하는 유일한 한국어 전용 교육현장은 아침 기상 체조부터 시작하여 한글수업, 수영, 붓글씨, 탈만들기를 하면서 하루종일 친구들과 함께 하는 귀한 체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토요일 한국학교에서는 수업에 집중하기에 부족했던 한국문화 풍습에 대한것을 마음껏 해 보는 귀한 날 들이었습니다.

각 기관들과, 특히 교회에서 음식으로 협조를 해 주셨고, 본인 자신도 우리 학생들에게 스크램블 거란 해 준다고 식당에 가서 실습하며 배웠던 까닭에 지금도 그 요리(?)를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98년 상록회 잔치: 구정이 되면 학부모와 교사들은 한복입고 노래하며, 아이들은 부채춤을 추며 어르신들이 마냥 행복해 하시던 일... 참 세배돈 받은것도 기억이 나는군요. 조영애 선생님이 키보드를 메고 다니면서 행사 때마다 참으로 수고 많이하셨고, 아이들에게도 귀한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음은 이제 그들의 좋은 추억과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98년 5월 16일은 참으로 뜻깊은 추억이 있는 날입니다. 중서부 한국학교 협의회가 주관하는 차세대 한국교육진흥'을 위한 예술제가 시카고에서 열렸는데 캔사스한국학교 유진석군과 정지현양이 듀엣으로 오페라 춘향전의 "사랑가" (춘향이와 이도령이 부르는 노래, 지도/반주: 조영애)를 불러 시카고의 무대에서 빛을 발하고 왔습니다. 당시 시카고 한국테레비 방송에 방영이 되어 축하전화를 받기도 하고 학부모님 네 분과 독고영식 이사장, 조영애 교사 모두 몸은 피곤했지만 캔사스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기쁘고 보람찼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개인적인 추억으로는 한국마켓이 귀하던 Kansas City에 비해 시카고의 한국마켓은 눈이 휘둥그래질 정도로 우리에게 신기하고 상품들이 다양했으며 특히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몽땅사서 Kansas로 무사히(?) 가져왔던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글을 맺으며... 그동안 한국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배우던 학생들이 졸업후 미국사회의 곳곳에서 훌륭한 중견 지도자로 생활하는 소식을 들을 때 가슴 뿌듯함을 느끼며, 우연히 만날 때도 달려와 등을 치며 하이! Mr. 독고!하고 불러줄 때, 또 반갑게 인사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들이 Korean- American으로 자부심과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드리며 40년 세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학교 이명재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새롭게 도약하는 한국

학교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더구나 2020년 가을에 지난 40년 동안 한국학교와 여러모습으로 인연을 맺었던 모든 분들을 초대해서 한국학교 설립 40주년 기념행사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모은 기념책자를 출판한다고 하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 행사에 참석해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한 한국학교의 모습도 보고 그동안 바빠 지내느라 잠시 잊고 지냈던 여러분들을 만나 인사도 하고 그때의 재미있는 추억들을 떠올리며 오랜시간 얘기 보따리도 풀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저와 같이 반가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필자소개:
독고영식 전 이사장님은 한국학교의 1996년부터 5년간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학교의 발전에 여러가지로 노력하셨습니다. 이 글은 2020년 한국학교 40주년 기념책자에도 게재될 예정이며 우리들의 이야기로 함께 엮을 여러분들의 소중한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한국학교 40주년 기념책자에 함께 실을 여러분의 소중한 글과 사진은 아래로 보내주세요.
이사장: 이명재 816-672-9195, myongjai.lee@gmail.com
편집위원: 조영애 913-749-8384, 2youngaessi@gmail.com
윤부성 816-398-5547, hannahkwon620@gmail.com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안향미 교사 '제10회 국내 및 해외 한국어 교육자 체험수기 공모전 입상'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와 국제언어교육원 공동주관으로 주최했던 '제10회 국내 및 해외 한국어 교육자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안향미교사가 입선을 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령하였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문화 가정 구성원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체험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던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교육방법과 생생한 지도체험 등의 내용을 중점사항으로 다뤄진 공모전이었다.

안향미 교사는 '한글 배우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기초반 학생들과의 수업 경험을 토대로 글을 써서 공모전에 응모하여 입선하였다. 한글 자음과 모음, 그리고 한글 기초 단어들을 배우게 되는 기초반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지도체험을 가지고 쓴 수기에는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도움이 되었던 여러 교육방법들과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재미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내용들이 담겼다.

2019년 가을학기 기초반 학생들에게 실시했던 '한글 자음모음 비디오 영상 수업법'은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학생들이 가정에서 한글 공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시작한 수업법이었다. 학생들이 이해하고 배우기 쉽도록, 안향미 교사가 직접 학생들의 교과서에 나온 자음과 모음 내용을 책 순서대로 그대로 찍으며,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천천히 2번씩 반복해서 글자를 읽어주는 방법으로 만든 동영상 자료들을 학부모 단체 카톡방에 올려 영상 자료를 공

유하였고, 학생들이 계속 영상을 접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이었다. 기초반 수업은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글자 쓰기도 처음부터 순서를 맞게 정확히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음의 형태를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몸으로 글자 모양을 배우는 '태권도 동작을 이용한 모음 배우기', 유튜브 한글 비디오 링크들을 학부모님들께 매주 이메일로 계속 보내 드려서 아이들이 집에서 비디오 영상을 계속 접할 수 있도록 하기, 배우는 내용 반복 교육, 그리고 재미있는 한글 교육을 위하여 쿠키도 직접 구워가서 학생들이 쿠키 위에 글자를 써보기도 해 보고, 과자를 이용하여 배우는 글자 만들기, 과자나 컵케익 위에 슈가 아이싱 크림이나 휘핑크림으로 단어쓰기, 작은 마쉬멜로우로 글자 모양내기 등 여러가지 아이디어로 아이들이 재미있게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던 체험을 바탕으로 글을 썼다.

안향미 교사는 최근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외국

인 학생들이 한글 배우기를 시작하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들을 여러 번 보았기에 전세계에서 한글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모두 포기하지 않고 한글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교육자 체험수기에 공모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안향미 교사는 지난번 2017년도에 실시되었던 '제8회 국내 및 해외 한국어 교육자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장려상 당선과 더불어, 이번 2019년도에 다시 한번 더 '제10회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게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에 입선한 체험수기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웹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웹사이트의 전시회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캔사스시티 한국학교Website : <http://kckoreanschool.korean.net>





2019년도 가을학기 캔사스 시티 한국학교 종강식

2019년 12월 14일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가을학기 종강식이 거행되었다. 모두 함께 국민의례와 애국가 및 미국국가 제창을 하였고, 한국학교 학부모이기도 한 정우현 목사의 감사기도가 이어졌다.



이명재 이사장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환영사를 전하였다. 특별히 2020년은 캔사스시티 한국학교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이라 준비하는데 모두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하였다.

이번 가을학기 종강식에 자리를 함께 해 준 안경호 캔사스시티 한인회장은 캔사스시티 한국학교에 가족 중 4명이 다니고 있다며, 한국학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고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2,000의 기부금도 전달해 주었다. 안경호 한인회장은 학기 중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위하여 과자 및 음료수도 지원해 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학교를 위하여 애써 주었다.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학생들은 안경호 회장의 인사말이 끝나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어지는 순서로는 학생들의 특별공연이 있었다.

고급반 유하나 교사가 만든 '2019년 가을학기를 돌아보며' 비디오 영상을 보는 시간도 가졌다. 2019년도 가을학기 동안 캔사스

시티 한국학교 학생들이 각 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각 반별 사진들과 함께 대외 행사 등의 한국학교 학생들의 활동, 그리고 한국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이 솔선수범하며 간식시간 도움을 주신 사진 등을 모아 만든 비디오 영상들을 보며 캔사스시티 한국학교를 통하여 모두가 함께 했던 파스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았다.

오케스트라반은 황예슬 교사의 지휘 아래 '아름다운 나라'와 '상어 가족' 연주를 선보이며, 종강식에 멋진 음악의 선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정지송 교사가 맡은 중급1반과 나일송 교사가 맡은 중급2반 학생들은 '가다다 같이' 라는 뮤직비디오 영상을 함께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노래에 맞추어 아이들이 예쁘게 그린 그림들로 만들어진 뮤직 비디오가 정말 인상적이었다.

무용반에서는 유감무 특별활동 교사의 지도로 부채춤 발표가 있었다. 아이들은 예쁜 한복에 앙증맞은 족두리도 하고, 머리에 땡기도 맞추어 매고, 예쁘게 우리고유의 춤인 부채춤을 추었다. 특별활동 시간에만 연습한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은 모두 멋지게 부채춤을 선보였다.

유치 1반은 황유선 교사의 지도 아래 '김치송' 율동을 선보였다.



캔사스시티 한국학교에서 가장 어린반인 유치1반 아이들은 김치송 율동에 맞추어 모두 함께 열심히 춤을 추었다. 아이들의 앙증맞은 춤 동작이 너무 귀여워 여기 저기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번 2019년 가을학기 종강식에서도 유치1반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김혜경 교사가 맡은 유치2A반과 김가진 교사가 맡은 유치2B반은 함께 '번개체조'와 '창밖을 보라' 율동을 선보였다. 아이들 모두 햇빛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예쁘게 발표도 잘 하였다.



초급1반 (담임 이수진)은 '도레미 송'을 선보였다.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모자와 머리띠를 하고, 무지개 색깔 중 원하는 색을 선택하여 옷을 맞춰 입고, 그동안 연습했던 실력을 최선을 다하여,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안향미 교사가 맡은 기초반은 '



숫자 노래' 율동을 발표하였다. 기초반 학생들은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티셔츠에 청바지를 맞추어 입고, 양손에 여러 색깔의 풍선을 들고 멋지게 발표를 해주었다.



이은미 교사의 지도아래 초급2반 학생들은 '학교종이 땡땡땡'과 '반짝 반짝 작은 별', 그리고 '어머니 은혜'를 리코더로 연주하였다. 초급2반은 연극으로 '금도끼 은도끼'도 발표하였다. 아이들 모두 정말 재미있고 멋지게 연극발표를 하였다. 덕분에 연극이 끝나고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학기 중 리코더도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연극연습도 했던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많이 기억될 것이라 생각되었다.



고급반(담임 유하나)에서는 학생들이 '한국 노래와 우리 (Korean Sons and Us)'를 발표해 주었다. 2019년에는 캔사스시티 한국학교에 학생회가 처음으로 생기며 고급반 학생들 중심으로 학생회 임

원들이 선출되어 학교 티셔츠 제작 등 학교 행사에 함께 참여도 하며 기억에 남을 멋진 2019년 가을 학기를 보낸 고급반 학생들은 모두 함께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하며 멋진 무대를 보여 주었다. 유하나 교사는 함께 드럼도 치면서 고급반 아이들과 함께 하였다.



이번 가을학기 종강식에는 KSL 학생들이 3팀으로 나누어 발표를 해 주었다. 첫번째 팀은 이선희의 '인연'이라는 노래에 맞추어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 주었다. 2번째 팀은 '겨울 겨울해' 노래에 맞추어 K-Pop가수들처럼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 주었다. 마지막 팀은 황예슬 교사와 이주현교사까지 함께 하여 '미인(Beautiful Girl)' 노래에 맞추어 K-POP 댄스 공연을 해 주었다. KSL 학생들의 적극적이 발표까지 더해져 2019년도 가을 학기 종강식은 뜨거운 함성과 박수가 그칠새가 없었다.

끝으로 이명희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교장은 종강식에 참석해 주

신 모든분들과, 애써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고, 교사 및 보조 교사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며 가을학기 종강식은 마무리 되었고, 각 반에서 교재의 시간을 가졌다. 2019년 가을학기에, 캔사스시티 한국학교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규모가 컸던 여러 대외 행사들도 멋지게 치러내었고,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안에서 교사들의 가르침 아래 학생들 모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열심히 배우며 멋진 시간을 함께 하였다.

캔사스시티 한국학교는 다가오는 2020년 1월 25일 봄학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글/사진: 안향미)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교사 및 미디어팀장
캔사스시티 한인회 보도위원
외교부소속 재외동포재단 통신원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보도위원



1월 도네이션 명단

한인회 도네이션 명단		
안경호	\$25,000.00	제일장로교회 \$200.00
시카고총영사관	\$14,928.56	박병관 \$200.00
안성호	\$1,835.00	Scott An \$200.00
Asian-American Chamber of Commerce	\$1,500.00	Thomas Lee \$200.00
Assi	\$1,100.00	양영승 \$200.00
초기	\$1,000.00	이옥순 \$200.00
Indian creek shopping center	\$1,000.00	김금규 \$200.00
상곡회	\$1,000.00	김호진 \$200.00
GnS	\$1,000.00	유갑무 \$200.00
왕희철	\$960.00	임마누엘길리교회 \$150.00
김봉석	\$800.00	이주현 \$150.00
독고영식	\$600.00	정기호 \$110.00
故 박세현 회장 가족	\$500.00	이광남 \$100.00
Viva fashion	\$500.00	김광욱 \$100.00
김성배	\$500.00	김주윤 \$100.00
장영준	\$500.00	김준배 \$100.00
Harlan C. Parker Insurance Agency	\$500.00	정영로 \$100.00
김수환	\$500.00	손경숙 \$100.00
문현자	\$450.00	박병관 \$100.00
배규태	\$440.00	조영하 \$100.00
서현진	\$300.00	박용운,정보영 \$100.00
송세준	\$300.00	이주찬 \$100.00
인병희	\$300.00	고원근 \$100.00
김진홍	\$300.00	이재명,오매영 \$100.00
김오원	\$300.00	함영수 \$100.00
정신여고시카고동창회	\$300.00	LG 헤드셋,전화기,TV
베델 장로 교회	\$200.00	중부시장 압력밥솥 2개

\$100 이하 도네이션 명단	
총금액:	\$715.00
나눔의 교회, 김정원, 은영영, 최병연, 천우선&천정호, 윤정재, 모인환, 권중호, 한경완, 최요식, 김재봉, 한영죽 무명(\$61.00)	
도네이션 TOTAL:	\$60,838.56

한인회 회비 내신 분들 명단				
Chung Yun	김시현	박은지	이경남	조정남
J Kim	김영노	박중현	이관배	조정숙
John Doawson	김용훈	방은숙	이명재	주성빈
Matt Park	김유환	배관호 김가진	이수산	주은은
Scott Ahn	김은하	배규태 배화자	이승우	지형준
Thomas Lee	김재봉 김순자	서지원	이승현	차미화
강대원 박선영	김정원	서현진	이아름	차상욱 송진희
강미영	김정태	손경숙	이영일	천우선
고광용	김주연 김정수	송세준	이옥순	천창호
고글렌 김성연	김준	송진희	이재명 오매영	최병연
고원근 고복자	김준배	신태전	이주찬 월영희	최진진
권수연	김중수	신혜승	이찬양	최성숙
권순정	김준환	심해진	이향경	최성오
권중호	김진홍	안경호	이효순	최성용
김경민	김창근	안성호	인병희	최요식
김광욱	김준운	안승민	임명찬	최현철
김광용 황인숙	김한석	안승철	임소연	하오령
김권	김현영	안진성	임은정	한경완
김금규	김효원 김종자	안향미	장민욱	한관희
김다위	김호찬	양혜연	장영준	한권석
김대중	데니스조 이주현	양봉래	전인성	한영죽
김도준	독고영식 박인숙	양영승	정공수	한유희
김동준	류승현	양용선	정기호 김세윤	함영수
김말자	모인환	오명순	정신혜	허장
김병철	문경환	오승현	정영로 천유희	헌전오
김병현 최영자	문현자	왕희철	정원화	홍순용
김봉석 노현이	박귀우	유갑무	정일호 정혜석	황민정
김삼아	박영미	유명재	정재호	
김상용	박병관	유혜란	정지훈	
김석환	박선희	윤덕노	정진미	
김성	박성장 박수미	윤정재	정태경	
김성배	박순현 박상희	윤종필	정판조	
김성일	박영일	윤태석	조영애	
김소라	박영자	은소희	조영하	
김수환 김미영	박용운 정보영	은영영	조은경	

2019 한인회 송년회 도네이션 명단	
안경호	\$2,000.00
AACC	\$1,020.00
초기	\$1,000.00
김성배(비행기티켓)	\$1,000.00
ASSI	\$1,000.00
안성호	\$600.00
우리교회	\$600.00
재미대한캔사스체육회	\$500.00
故 박세현 가족	\$500.00
동양백화점	\$500.00
Central Bank	\$500.00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이사회	\$420.00
미주리 중앙침례교회	\$360.00
권순정	\$300.00
김오원	\$300.00
유갑무	\$300.00
영락교회	\$200.00
한정순	\$200.00
차간	\$200.00
김정원	\$100.00
김영석	와인 36병
동양식품	압력밥솥 2개
LG	50" TV, 24" TV 5개, Sounds bar
Total	\$11,600.00

2019 한인회 송년회 Table Sponsors	
장영준	김성배
AACC	김준수
TBM	Viva Fashion
함영수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김영일	윤정재
연합성가단	

회비는 가족당 \$20.00
복식은 \$10.00
도네이션을 \$100 이상 하신 분은 자동으로 한인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인회비 보내실 곳
10409 Marty Ave, Overland Park, KS 66212



2019 한인회 송년파티

지난 12월 15일 Sheraton Hotel Convention Center에서는 ‘2019년도 캔사스시티 한인회 송년파티’가 개최되었다. 전날 저녁부터 행사 당일까지 계속 소복하게 내리는 함박눈으로 도로사정이 여의치 않아 한인회 임원들은 안전문제 등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모두의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정말 많은 캔사스시티 한인동포들이 눈 속을 뚫고 송년파티에 참석을 해주시며 캔사스시티 한인동포들의 뜨거운 저력을 보여 주었고, 덕분에 2019년 한인회 송년파티는 최고의 파티가 되었다.



이주현 사무총장과 데니스조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김준수 수석 부회장의 환영인사, 그리고 국민의례와 이주찬 고문의 지휘로 모두 함께 국가제창을 하였다.



이어지는 순서로는 이요한 목사가 기도를 해주었다. 안경호 캔사스시티 한인회장은 굿은 날씨 속에도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한인동포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고, 김성배 이사장의 격려사도

있었다. 이어지는 순서로는 공로패 수여식이 있었다.



캔사스시티 한인회가 지난 1년동안 한인동포들과 함께 했던 여러 행사들에 대하여 영상시청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1년이란 시간동안 캔사스시티 한인회는 한인동포들과 많은 행사를 함께 하였다. 3.1 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6.25 참전용사와 함께 하는 오찬, 순회 영사업무, 8.15광복절 기념행사 및 소프트볼 대회, 그리고 9월 오버랜드 파드 궁중의상 퍼레이드, 그리고 10월 KC 아리랑 행사, 캔사스시티 한인이민 100년사 기념 행사에 대한 영상들이었다. 무엇보다 KC 아리랑 행사에는 고려 어가 행렬 퍼레이드, 비빔밥 행사, 그리고 K-POP 콘테스트 예선전과 본선전이 있었다. 캔사스시티 한인회의 지난 1년동안의 주요활동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모두가 함께 했던 멋진 시간들을 돌아보았다.



김준수 수석부회장은 재외선거신청 등록안내를 해주었다.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대하여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및 국



외부재자 신고 기간이 2020년 2월 15일까지라는 안내와 더불어 신고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이용(ova.nec.go.kr)할 수도 있고, 공관에 방문하여 순회접수를 할 수도 있으며, 우편이나 전화우편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안내와 더불어 캔사스시티 한인동포들이 많이 신청을 한다면 캔사스시티 안에서도 선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안내도 해주었다.



김봉석 선관위 위원장은 ‘캔사스시티 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회 경과보고를 해주었고, 제33대 캔사스시티 한인회장으로 당선된 안경호 회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하였다. 이로써, 안경호 회장은 제32대 한인회장에 이어 제33대 캔사스시티 한인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부 행사를 시작하기전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이명재 이사장과 이



명희 교장이 2020년도 캔사스시티 한국학교가 4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안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소식을 전하였다.



이어지는 2부 행사로는 중앙감리교회 김다위 목사가 만찬기도를 해주었고, 이선행 피아니스트와 Ben Tervort협연으로 재즈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송년파티에는 특별히 K-POP 콘테스트 4, 5등 본선 우승자들과 1등 우승자들이 공연을 펼쳐 주었다. 박순현 캔사스시 장애인체육회장의 토크쇼도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었다. 특별히 이번 2019년 캔사스시 한인회 송년파티에서는 각 테이블별 노래대결이 있었다. 노래제목을 보고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추어 각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함께 노래를 끝까지 부르기를 하는 것이었다. 음악과 제목이 흘러 나오자 여기 저기에서 손을 들었고, 사회자들과 한인회 임원들은 지정 테이블쪽에 마이크를 전달하기 위해 이쪽 저쪽으로 열심히 뛰어다녔다. 테이블 별로 노래를 정확하게 끝까지 부른 팀에게는 산타 크로스가 맛있는 과자 선물을 테이블 수북히 나누어 주며 재미와 기쁨을 두배로 만들었다.



이번 2019년도 캔사스시 한인회 송년파티에는 아이패드, AirPods, Wireless mop, Soni-

care, Instant Pot, 다이슨 청소기, 압력밥솥, 노래방 마이크, 남성용 화장품, 로양제리, 25인치 TV, 50인치 TV, 사운드바, 그리고 한국 비행기표가 상품으로 준비가 되어 참석한 한인동포들에게 멋진 선물들이 추첨에 의해 전달되었다. LG에서는 TV를 비롯하여 7개의 상품을 제공해 주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분들이 이번 행사를 위하여 물질적,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시며 송년회 파티에 힘을 실어 주며 캔사스시 한인동포들에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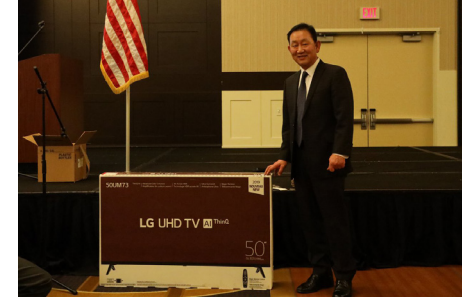
(LG에서 송년파티에 TV포함 7개 가전제품 지원)



(정신여고 시카고 동창회에서 기부금 전달)

안경호 한인회장은 캔사스시 한인회 송년파티를 끝내며 2019년 캔사스시 한인동포들 모두 건강하게 멋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기원하였고, 다가오는 2020년 새해도 힘차게 맞이하자고 하였다. 이번 캔사스시 한인회 송년파티에는 260여명이 넘는 캔사스시 한인동포들이 자리를 함께 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끝으로, 필자도 캔사스시 한인동포들 가정에 평안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2019년을 마무리해 본다.

(기사/사진: 안향미)
캔사스시 한인회 보도위원
캔사스시 한국학교 교사 및 미디어팀장
외교부소속 재외동포재단 통신원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보도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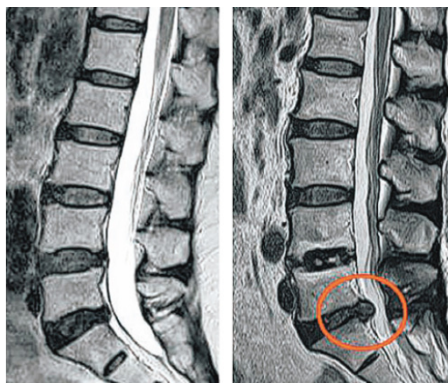
DR. HONG 의 뼈와 근육 이야기 : 허리 통증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캔사스 지역 모든 분들이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여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계속해서 건강칼럼을 연재한다.

허리통증은 일반적으로 척추 및 허리 주변 근육과 인대가 정상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나타난다. 잘못된 자세로 인해 흔히 발생하는데, 현대인의 경우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특히 바른 자세로 앉을 경우에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된다. 이렇게 발생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나중에 허리 디스크나 다른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렇게 발생한 요통이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 근육의 이완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통증이 훨씬 심해지고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증세가 악화될 수 있다.

허리통증원인



허리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하겠다.

1. 허리디스크

우리의 허리는 5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다. 척추의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며 충격을 막는 디스크라는데 있는데 이것이 압박과 압력을 받을 때 전부 혹은 일부가 빠져 나와 신경을 눌러서 발생하는 통증을 디스크라고 한다. 이런 통증은 목의 경우에는 팔에 마비 저림 증상이 동반되고 허리의 경우는 다리에 같은 증상이 동반되곤 한다. 요통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며 심할 경우에는 무언가로 찌른다거나 전기가 오는 듯한 느낌까지 받고 감각이 무뎠으며 보행패턴이 무너지는 증상도 느낄 수가 있다. 디스크는 XRAY 검사로도 발견할 수 있지만 MRI 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2. 척추관 협착증

주로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질병이었으나 요즘에는 오래 앉아서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종종 나타난다. 걸으면서 다리가 저린다거나 콧속 찌르는 듯한 요통이 자주 생기며 엉덩이나 하지까지 시린 느낌도 생기곤 한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 내벽이 좁아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에 압박이 오면서 통증과 마비가 오는 질환을 말한다. 척추는 대나무처럼 안쪽이 비어있는데 빈 구멍을 통해

신경다발이 지나가고 이 구멍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것이다.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로 인한 퇴행이지만 일반적으로 50대가 되면 뼈마디가 굵어지고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도 두꺼워져 척추관을 좁게 만든다. 게다가 뼈마디 사이에 있는 디스크도 닳아 없어져 신경압박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 두 질병을 유발하는 것은 앞서 말했다시피 대부분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때문이다.

척추 건강을 해치는 습관은 다음과 같다.

- 다리 꼬고 앉는 것
-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
- 소파나 의자에서 비스듬하게 누르는 것
- 휴대폰이나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는 것

- 높은 베개 사용하는 것
- 목을 빼고 모니터 보는 것
- 휴대폰이나 지갑 등을 목에 거는 것
- 거울이나 모니터 등 낮게 설치하는 것

이 외에도 운동부족으로 인한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자주 걷지 않으면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허리통증이 생기곤 한다.

자가진단 테스트

허리 질환에 걸린 것인지 자가진단을 하는 법은 간단하다.



평평한 곳에 바르게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로 위로 한 다리씩 올려봤을때 다리를 너무 높이 안올려도 되고 약 20~30도 정도 올렸을 때 다리를 올리기 힘들다거나 특정 부위 (특히 허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있다면 허리의 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또 주요 증상을 통해서도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다.

- 발 뒤꿈치로 걸었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
 - 똑바로 누워 있기 힘든 경우
 - 요통이 2주 이상 지속된 경우
 -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다른 경우
 - 엄지발가락을 눌렀을 때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 허리가 묵직하게 아픈 경우
- 위와 같은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에는 병원에서 내원해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허리통증 완화방법

허리통증 완화 방법에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한두 번 한다고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스트레칭

꾸준한 스트레칭은 요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근육이 이완되고 한편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유연하고 강한 근육은 척추를 둘러싸고 보호하기 때문에 척추에 압박이 줄어들고 디스크 역시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 옆구리 늘리기

허리를 꼳꼳히 세우고 앉아서 오른쪽 팔로 옆구리를 잡아 지탱하고 왼쪽 팔로는 오른쪽 하늘 위로 올린다. 최대한 할 수 있는만큼 왼쪽 옆구리를 늘려주다가 약 10초 정도 후에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온다.

- 고양이 자세

무릎과 양 손바닥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엉덩이를 들어준 채로 바닥에 엎드린다. 들숨을 마시며 천장을 바라보며 허리를 내리고 날숨에 머리가 배를 향하게 바라보며 허리를 둥글게 말아준다.

- 맥켄지 운동

개인적으로 강력히 추천하는 운동이다. 바닥에 엎드려 누운 상태로 양팔을 바닥에 붙이고 상체만 천천히 세워 허리를 젖혀 준다. 이때 허리에 힘을 주면 오히려 안좋으므로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허리를 부드럽게 이완시켜 준다.



2. 찜질

평소에는 요통이 없다가 갑자기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허리를 빼끗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냉찜질(ICE)을 하여 부종이나 염증을 완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평소에도 꾸준히 요통이 있던 분들은 온찜질을 통해 혈액순환을 시켜주면 통증이 완화된다.



3. 마사지

척추를 마사지해주는 것도 완화 방법 중에 하나다. 편안하게 엎드린 자세에서 허리 척추 바로 옆에 있는 근육을 집중적으로 마사지 해주면 된다. 손가락으로 척추 옆 오목하게 들어간 근육을 위 아래로 지긋이 눌러서 지압 마사지 해주면 된다.

4. 걷기

걷기 운동은 전신 운동이자 척추 질환에 매우 효과적이다. 움직일 때 척추 주변 근육은 자세 변화에 따라서 늘어났다가 줄어들며 척추를 단단하게 잡아주는데 자주 걷는 습관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허리의 유연성과 근육을 단련해주는 효과가 나타난다.

허리통증은 일상에서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만으로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지속적인 통증이 심해지고 차도가 보이지 않을 때는 전문의와 상담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허리 통증 치료는 뼈나 디스크가 심하게 손상되어 수술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익숙한 통증이기에 곧 괜찮아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전문의와 상담 후 치료를 받는 것이 빠른 회복을 얻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다.



Lohan Chiropractic and Acupuncture Clinic

척추 신경 전문의 홍성민

816-444-1218

COURT: PART OF 'OBAMACARE' INVALID, MORE REVIEW NEEDED

By REBECCA SANTANA, MARK SHERMAN and RICARDO ALONSO-ZALDIVAR

NEW ORLEANS

A federal appeals court on Wednesday struck down “Obamacare’s” now-toothless requirement that Americans carry health insurance but sidestepped a ruling on the law’s overall constitutionality. The decision means the law remains in effect for now. The 2-1 ruling handed down by a panel of the 5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in New Orleans means the ultimate fate of the rest of the Affordable Care Act including such popular provisions as protections for those with pre-existing conditions, Medicaid expansion and the ability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26 to remain on their parents’ insurance remains unclear.

The panel agreed with Texas-based U.S. District Judge Reed O’Connor’s 2018 finding that the law’s insurance requirement, the so-called “individual mandate,” was rendered unconstitutional when Congress, in 2017, reduced a tax on people without insurance to zero.

The court reached no decision on the big issue — how much of the Affordable Care Act must fall along with the insurance mandate. The decision sends the case back to a judge who already ruled once to throw out the entire ACA but with some guidance. O’Connor has to be more specific about which parts of the law can’t be separated from the mandate, and also must take into account Congress’ decision to leave the rest of the law essentially unchanged when it reduced the penalty for not having insurance to zero,

Elrod wrote.

The decision comes after the conclusion of sign-up season for ACA coverage in most states. Technical glitches over the weekend had led to an extension until early Wednesday. That means the court ruling will not affect enrollment for 2020.

The lawsuit followed congressional approval of a major tax cut in 2017, which included the reduction of the “Obamacare” tax on the uninsured to zero. The case came about because “Obamacare” opponents noted a splintered Supreme Court ruling of 2012 that upheld the law. In that decision, conservative justices had rejected the argument that Congress could require that everyone buy insurance.

Supporters of the law said the reduction of the tax penalty to zero could be read as a suspension of the tax, which didn’t render the mandate unconstitutional. They said the structure for collecting a penalty from the uninsured remained in place.

They added that, even if the individual mandate was rendered unconstitutional by the tax cut bill, the rest of the law could be salvaged.

Congress had already failed to repeal the Affordable Care Act in its entirety, the law’s supporters noted. What happened in 2017, they contended in written arguments, is that Congress “chose to make the minimum coverage provision unenforceable — while leaving every other part of the ACA in place.”

캔사스 한인업소록 (Kansas Korean Business Directory)

(업소변경, 삭제, 새로운 업소 정보는 kim@kckoreanjournal.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가전제품 수리

A-2 Vacuum and Sewing Machine
816-456-9691
1523 Main St., Grandview, MO 64030
건축/집수리
Cho's Upholstery, 816-444-8656
7702 Wornall Rd KC, MO 64114
Ko Brother's Contractor Builder, 913-219-2401
15455 Overbrook Ln., Stanley, KS 66224
Moon Tile, 913-522-2311
12817 W 77th St., Lenexa, KS 66216
Jin D Kim Construction INC, 816-810-6568
8110 N LONDON DR, KC, MO 64151
Young Kim Co, 913-634-2680
7575 W.106th St #13-14, OP, KS 66212
Yi's Home Repair, 913-634-4725
8809 Cottonwood St, Lenexa, KS 66215

구두수선

America Shoe Repair, 816-524-7555
618 SW 3rd St G, Lee's Summit, MO 64063
ACME Shoe Rebuilders, 913-682-5591
211 S. 5th St, Leavenworth, KS 66048
Rosana Shoe Hospital & Tailor
913-469-8070
7556 W 119th, OP, KS 66213
Westfield Shoe Repair, 913-334-2506
8131 State Ave, KC, KS 66112

금융

Family Financial Group:
용자 (장정호) 816-878-8778
106 South Main St, Spring Hill, KS 66083
Merrill Lynch (최원준) 913-906-5299
3401 College Blvd, Leawood, KS 66211

꽃집

Judy's Flowers & Gift, 913-492-1600
12267 W 87th St Pkwy, Lenexa, KS 66215

델리

Break Time Plus, 816-221-4146
2405 Grand Blvd #108, KC, MO 64108
B&L Sub 913-451-8585
7015 College Blvd, #120, OP, KS
Cafe 84, 913-327-8899
10801 Mastin Blvd #190, OP, KS 66210
Corporate Cafe, 913-451-9078
9401 Indian Creek Park Ste #175, OP, KS
Gino's Deli, 913-342-8225
825 N. 7th Street KC, KS 66101
Hill Top Deli, 913-451-3744
10955 Lowell, #120, OP, KS 66210
In And Out, 816-421-5041
1007 Main St, KC, MO 64106
Hyundai Korean Restaurant, 913-682-5352
749 Shawnee, Leavenworth, KS 66048
Neo Delicatessen, 816-421-1788
1000 Walnut St, Ste 205, KC, MO 64106
4 Star Deli & Catering, 913-338-3065
7400 W. 110th St, OP, KS 66210

미용재료

A.Q.Beauty Supply, 816-761-8815
8708 Blue Ridge Blvd, KC, MO 64138
A.Q.Beauty Supply
3812 E. Truman Rd, KC, MO, 816-241-3123
3136 Stadium Dr, KC, MO, 816-861-7068
AQ Beauty Supply, 913-421-1145
1981 N. 63rd Drive KC, KS 66102
A.Q.Beauty Supplies, 913-758-1171
508 Delaware, Leavenworth, KS 66048
Bannister Beauty Supply & Bazaar
816-761-4300,
8236 Bannister Rd, KC, MO 64134
Beauty Essence, 816-753-8199
1319 Brush Creek Blvd, KC, MO 64110
Beauty N More, 816-753-2199
3814 Main St, KC, MO 64111
Super Bunny's Wigs & Boutiques

913-342-2176
3748 State Ave., KC ,KS 66102
C.J's Gold Department Store, 816-444-1500 1240
E. Meyer Blvd, KC, MO 64131
Tres Bliss Beauty/Glamourama, 816-361-5099
1240 E Meyer Blvd, KC, Missouri 64131
GenX, 816-333-7888
1104 E Meyer Blvd, KC, MO 64131
Ebony Wigs & Beauty Supplies, 816-421-0450
1216 Mcgee, KC ,MO 64106
Evelyn's Beauty Supply, 816-842-1400
1911 Baltimore, KC, MO 64108
King's Beauty Supply, 816-444-4333
7720 Troost Ave, KC, MO 64131
K.C. Discount Warehouse, 816-371-7766
932 Minnesota Ave, KC, KS 66101
Mid-K Beauty Supply,
1111 Brooklyn Ave, KC, MO, 816-421-1145
3523 Prospect Ave, KC, MO, 816-921-2255
Metro Beauty Supply, 816-444-9562
1636 E. 63rd St, KC, MO 64110
Metro North Wig Salon, 816-436-7840
400 NW Barry Rd, KC, MO 64155
Metro North Wig Salon, 816-436-7840
220 NE Barry Rd, KC, MO 64155
Unique Beauty Supply, 816-761-5255
7019 E 95th Street, KC, MO 64134
JT Beauty Supply, 816-763-1666
6851 Longview Rd, KC, MO 64134
Sonya Beauty Supply & Variety
816-767-9575
12030 Blue Ridge Blvd, Grandview, MO
Two Brother's Beauty Supply
843 Minnesota Ave, KC, KS, 913-621-1212
6429 State Ave., KC, KS, 913-788-1212
Wig City, 913-633-2550
10701 Shawnee Mission Pkwy
Shawnee, KS 66203

미장원

Great Cuts, 913-341-5265
10312 Metcalf, OP, KS 66212
Hair Care Family, 816-257-5321
17004 E. 24 HWY, Independence, MO 64056
Hyundai Beauty Salon, 913-682-6688
712 S. 5th St, Leavenworth, KS 66048
Sue's Beauty Salon, 913-682-2337
215 S. 5th Street, Leavenworth, KS 66048
Koreana Salon, 913-701-9417
12020 Blue Valley Pkwy, Ste 212, OP, KS
Salon DD, 913-777-0052
7800 Shawnee Mission Pkwy, OP, KS 66202
D & S Salon, 913-428-7827
6471 Quivira Rd, Shawnee, Kansas 66216

베이커리/도넛

Daylight Donuts, 913-884-8400
828 E. Main Gardner, KS 66030
Dave's Bakery & Deli, 816-461-0756
214 W. Maple, Independence, MO 64050
Daylight Donuts, 913-459-8219
8736 Lackman Lenexa, KS 66219
Tours Les Jours, 913-383-2828
10348 Metcalf Ave, OP, KS 66212

변호사

Kutak Rock, L.L.P. (김준범) 816-502-4612, 10412
Metcalf Ave, OP, KS 66212
Ray E. Sousley (Ray Sousley) 816-931-5000 800
Westport Rd, KC, MO 64111
Ji Hyun (Jennifer) Kim, Corporate Finance Law-
yer Stinson Leonard Street
816-691-3464
1201 Walnut Street, Ste 2900, KC, MO 64106
Susan Son, McCrummen Immigration Law 2005
Swift Ave., North KC, MO 64116

병원

건강환의원 (Kan Acupuncture Clinic)원장 윤대일

314-317-9900, 12935 Olive Blvd.
St. Louis, MO 53141 (주주식당업)
로한 척추신경 & 침술 클리닉/ 로한 스킨 클리닉 816-
444-1218,
404 Bannister Rd. Suite B, KC. MO 64131
www.lohanchiro.com, www.lohanskin.com
신태전 척추신경 통증 한방재활 병원:
913-649-2044,
7050 W 105th St. O.P. KS 66212
Kacclinic.com
장영준 치과 (State Ave Dental Office)
913-299-8554, 8476
6708 State Ave, KC. KS, 66102
Bethesda 척추/침술 클리닉: 913-341-1930
8014 State Line Rd. Suite 101 Leawood KS
Grandview Chiropractic and Acupuncture Clinic
(Dr. Kyunghwan An)
816-217-0020, 12421 Suite O Blue Ridge Blvd.,
Grandview, 64030
Oriental Acupuncture & Herb (김진수)
816-942-7879
12655 State Line Rd, KC, MO 64145
Excelsior Springs Nursing (황정호)
816-630-3145
1003 Meadowlark Ln, Excelsior Springs, MO
The University of Kansas Health System
Yoon Hang Kim MD 김 윤희 의학박사
대체의학, 침술, Phone 913-588-6208
4000 Cambridge St., Mailstop 1017, 2nd Floor
Sudler, Suite 2053, Kansas City, KS 66160
Jee-hyon Park, MD, Internal Medicine
AdventHealth Medical Group Primary Care at
De Soto, 8960 Commerce Drive, Suite 4E De
Soto, KS 66018, Phone: 913-789-3961

보석

A&G Jewelry 913-281-4794
4301 State Ave, KC, KS 66102
Han's Jewelers
913-299-3655, 7700 State Ave, KC, KS
913-648-5100, 10446 Metcalf Ave, OP, KS

보안시스템

Z & H Electronics 913-250-0677
605 Brookwood, Lansing, KS 66043

보험과 부동산/세무회계

BizPro 비즈 프로 세무, 회계/플래티넘 부동산:
Junsu Kim, Mia Bahn, 913-383-8558
10322 Metcalf Ave. O.P. KS 66212,
의료보험 에이전트 : 이리사 913-217-5169, 7180 W
107th St, #10, OP, KS
LeeLisa2014@yahoo.com
Bae Brothers Co (816) 333-1285
1240 E Meyer Blvd, Ste A, KC, MO 64131
Marks, Nelson Vohland & Campbell, Radetic
LLC (박정훈) 913-498-9000
7701 College Blvd Suite 150, OP, KS
Insurance Agent, Lisa Lee Moran, 913-217-5169,
lisa@autohomekc.com, 7180 W 107th St #10,
OP, KS 66217

부동산 중개

블락 부동산 BLOCKS Real Estate
Jennifer Jang, 장지연, 816-729-6232
jjang@blockllc.com
Paul Shin, 816-560-0988
pshin@moveiwth platinum.com
Explore Real Estate (박영림) 913-522-2475 11267
Strang Line Rd, Lenexa, KS 66215
Keller William Realty Partners Inc. (양혜연) 913-
266-5897, 913-484-6126 8005 W 110th St Suite
100, OP, KS 66210
K & K Inc.(이미애) 816-716-9001
1714-1726 W. 39th St, KC, MO 64111
6413 N. Park Ave, Gladston, MO 64118

사진관/프레임

Art & Frame 웨어하우스
98854 N Boardwalk, KC, MO, 816-584-8009

9216 Metcalf Ave, OP, KS, 913-385-9199
1032 W 136th St, KC, MO, 816-941-2307

상담/용역

Premier Medical Personnel (Nancy)
913-345-8484, 11038 Oakmont, OP, KS

세탁소

Country Meadows Laundrymat
816-524-5677
908 NE. Chipman, Lee's Summit, MO 64085
Country Cleaner, 816-373-3324
17201 E. 40 Hwy #109, Independence, MO
Central Coin Laundry 913-621-2224
1036 Central Ave., KC ,KS 66102
Dry Cleaner 816-891-8448
10018 N, W. Executive Hill Blvd, KC, MO
Diamond Cleaner 913-642-8353
6701 W. 75TH ST, OP, KS 66204
Easy Cash & Wash 816-924-3235
7000 Eastwood Trfy, KC, MO 64129
Holiday Cleaners (913) 631-6181
7945 E Frontage Rd, OP, KS 66204
Ida's Daisy Fresh Cleaners 816-436-6648 7521 N.
Oak TRFWY, Gladston, MO 64118
Independence Coin Laundry 816-252-7776,
10816 E. 23rd St South, Independence, MO
Prestige Cleaners 816-763-2522
12200 Blue Ridge EXT #B, Grandview, MO
Koin Kleener 816-453-6303
601 N. W. Englewood, KC, MO 64118
Koko Laundry 913-682-2526
604 Pottawatomie St, Leavenworth, KS
Leawood Village Cleaners 816-942-3838 13009
State Line Rd, KC, MO 64145
Laundry Basket 816-923-0979
4418 E. 39th St, KC, MO 64128
Maple Hill Laundry 913-362-4525
2424 S. 34th St, KC, KS 66101
Oak Park Cleaner 913-599-3040
12230 W. 95th ST., Lenexa, KS 66215
Old Town Dry Cleaner 816-252-1677
3908 Lynn Court., Independence ,MO
Old Town Laundromat 816-254-4501
3910 Lynn Court., Independence, MO
Plattewoods Laundry 816-587-6695
6740 Tower Dr., Plattewood, MO 64151
Quinn's Laundry 816-322-1886
124 North Ave., Belton, MO 64012
Q. Cleaners 913-390-6181
2107 E. 151st St., Olathe ,KS 66062
Royal Master Cleaner 816-842-3375
1505 Grand Ave., KC, MO 64108
Rainbow Cleaners Drive In 913-236-9295
4511 Rainbow Blvd, KC, KS 66103
ST Coin Laundry 816-833-3021
2230 S Norton Ave D, Independence, MO
Supreme Cleaners & Shirt Laundry
816-761-3707
11114 Blue Ridge Blvd, KC, MO
Sta-Clean Cleaners, 816-421-6223
1120 McGehee St., KC, MO 64106
Shamrock Dry Cleaners 816-942-2324
604 E. 99th St., KC, MO 64131
Shirley's Dry Cleaners, 816-444-4779
7936 Troost Ave., KC, MO 64131
Sparkling Coin Laundry, 816-741-3767 4605 NW.
Gateway, Riverside, MO 64150
Sunshine Fabricare, 913-649-8364
8730 Santa Fe Dr., OP ,KS 66212
Speedy Laundry, 913-631-6773
10403 W. 75th St, Shawnee, KS 66214
Tomahawk Laundromat 913-268-3535 10902 W
74th Terrace, Shawnee, KS 66203
The Dry Cleaners(MCI) 816-891-8448 10018 NW.
Executives Hill Dr, KC, MO
Tae's Laundry, 913-782-9345

223 S. Kansas Ave, Olathe, KS 66061
VIP Cleaner, 913-894-6606
10400 W. 103rd St, OP, KS 66215
Won's Cleaners, 913-722-1681
5921 Johnson Dr., Mission, KS 66202
Westwood Village Laundromat
913-432-8479
2801 W. 47th St., Westwood ,KS 66205
Young's Dry Cleaning and Laundromat
1274 Merriam Ln, KC, KS 66103
스프링클러
Heritage Irrigation Co., 913-205-5922
11511 S Strang Line Rd Suite A, Olathe, KS
식당
조선 갈비 (Chosun), 913-378-3534
12611 Metcalf Ave, OP, KS 66213
초가 (Choga), 913-385-2151
6920 W. 105th St, OP ,KS 66212
소반 (Sobahn) 913-384-1688
7800 W 63rd St #3, OP, KS 66202
Bob Wasabi, 816-753-5797
1726 W 39th St, KC, MO 64111
Gangnam Restaurant (913) 383-8888
10326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Cafe Vie (베트남 쌀국수) 913-558-0600
10330 Metcalf Ave, OP, KS 66212
Haru Sushi, 816-942-1333
13133 Stateline Rd, KC, MO 64145
KoKoDAK 913-730-8054
14856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kodakchicken.com
Kokoro Maki Japaness Restaurant
340 W 75th St, KC, MO
(816) 363-0678 kokoromaki.com
Maru Sushi and Grill, 913-258-5879
5621 W 135th St #2620, OP, KS 66224
New Peking, 816-531-6969
540 Westport Rd, Kansas City, MO 64111
O Cafe (Korean), 785-312-9211
1530 W 6th St, Lawrence, KS 66044
Red Snapper, 816-333-8899
8430 Ward Pkwy, KC, MO 64114
Sushi Uni, 913-322-8667
12841 W 87th St Pkwy, Lenexa, KS 66215
Wa Japaness Restaurant, 785-843-1990
740 Massachusetts, Lawrence, KS 66044
식품점
동양식품 Oriental Supermarket
913-341-3345
10336 Metcalf Ave, OP, KS 66212
중앙식품 Joong Ang Grocery
913-384-4989
7800 W 63rd St #1, OP, KS 66202
현대 식품점, 913-651-2622
749 Shawnee St, Leavenworth, KS 66048
Arirang Market, 913-680-1381
626 B Cherokee St, Leavenworth, KS 66048
Chunco Foods, 816-283-0716
1400 E. 2nd St., KC, MO 64106
JOY 식품, 913-321-3177
930 Minnesota Ave, KC, KS 66010
여행사
Wing Gate Travel , 913-451-9200
8645 College Blvd #100, OP, KS 66210
오디오
Sound of Stereo,913-281-4601
920 Minnesota Ave KC, KS, 66101
의류
Bargain City Bazaar, 913-342-7002
916 Minnesota Ave, KC, KS 66101
Fashion In Motion, 816-361-2552
1256 E. Meyer Blvd, KC, MO 64131
Jung Tailoring Shop, 816-228-9191
103 SW State Route 7, Blue Springs, MO
Rome's Boutique, 913-772-6885
414 Delaware St., Leavenworth, KS 66048
So Young Fashion, 816-421-1171
400 Grand Ave #66, KC, MO 64106
Young Fashion, 816-861-0006

3116 Prospect Ave, KC, MO 64128
Midway Shopping Center, 913-281-7035 4305
State Ave, KC, KS 66102
선물/화장품
동양 백화점/비디오 Oriental Gifts & Video
913-961-2533
10346 Metcalf Ave, OP, KS 66212
Mary Kay, 913-397-6706
11730 W. 135St #11, OP, KS 66221
Olathe BP, 913-402-9331
1605 E Santa Fe, Olathe, KS 66061
의류수선
Speedy Alteration, 913-248-1151
7727 Quivira Rd, Shawnee Mission, KS 66216
Corinth Alteration, 913-383-9560
4185 Somersert Dr, Praire Village, KS 66208
Camelot Court Alteration, 913-327-5525
11831 Roe Ave, Leawood, KS 66209
Kim's Tailor Shop, 913-451-2727
4872 W. 119th St, Leawood, KS 66209
Kim's Alteration, 816-228-1355
919 W. 40 HWY, Blue Springs, MO 64105
K.C.Alteration, 816-474-8333
814 Grand Ave., KC, MO 64106
Lee's Alteration, 816-765-2255
7011 E. Bannister Rd., KC, MO 64134
Leawood Alteration, 816-942-8057
12925 State Line., KC, MO 64145
Lenexa Fashion & Alteration, 913-888-0960
14924 W. 87th St, Lenexa ,KS 66215
M & J Tailor Shop, 913-782-8107
18280 157 ST, Olathe, KS 66062
Maxines, 913-341-2534
9528 Hadley, OP, KS 66212
Park's Alteration, 816-221-3129
304 E. 21st Ave., KC, MO 64116
Tom Tailor Shop, 913-888-8737
10392 Mastin, OP, KS 66212
Quivira Taylor, 913-851-4991
11670 W. 135th St, OP, KS 66221
자동차 수리/판매/부속
Elim Motor (김종수) - 판매, 913-371-4841
29 S. 18th St, KC, KS 66102
Jo's Auto & Body Center Inc.
(정판조) - 수리,816-923-0330
3333 Stadium Dr, KC, MO 64128
Shawnee Auto Motive Center
(권정수) - 수리 913-631-3497
11015 W. 58th St, Shawnee ,KS 66023
전자회사
Maxon America, Inc., 913-859-9515
11535 W 83rd Ter, Lenexa, KS 66214
www.maxonamerica.com
DataLocker, 913-310-9088
7007 College Blvd #240, OP, KS 66211
잡화
Dollar Mart, 816-861-2223
3105 Prospect Ave, KC, MO 64128
Hyesuk Haglin, 816-822-0375
6025 State Line Rd., KC, MO 64113
조경/잔디
Lee's Lawn & Tree Service, 816-524-7582 11714
Milton Thompson Rd
Lee's Summit, MO 64068
Young Brothers Lawn & Tree Service
816-616-3292, 816-318-1667
2101 E 183rd St, Belton, MO 64012
주류 판매
Bi - Lite, 816-761-7337
12818 S. 71 HWY, Grandview, MO 64030
C & J Enterprise Inc, 816-253-9112
#2 Robin Dr, Agency, MO 64401
Deluxe Liquor, 816-231-8119
4205 E. 24th St, KC, MO 64127
ISO Growell Corp, 913-383-5344
10412 Metcalf Ave., OP ,KS 66212
J&L Discount Wines & Spirits, 913-648-1770
10304 Metcalf Ave., OP ,KS 66212
KC Liquor, 913-441-8423

10320 Kansas Ave, Bonner Springs, KS
LG Infocomm USA, INC, 913-498-5912
6201 College Blvd Suite 350, OP, KS 66211
Ray's Discount Liquor, 913-268-9862
7422 Nieman Rd., Shawnee, KS 66203
Shamrock Liquor
10326 Blue Ridge Blvd, KC, MO 64134
816-966-9917
11810 Blue Ridge Blvd, KC, MO 64134 816-763-
3380
Sommer's Liquor, 913-371-2020
146 S. 18th St, KC, KS 66102
Tec Net Int'l Inc, 816-584-8638
1420 NW Vivion Rd #109, KC, MO 64118
Tekk Incorporated, 816-746-1098
226 NW. Parkway, Riverside, MO 64150
Westport Wine & Liquor, 816-561-3500
1106 Westport Rd, KC ,MO 64111
주유소
INNER CITY OIL, 913-371-4521
540 S. 10 th Street, KC ,KS 66102
Swansea Inc./Phillip 66
913-488-163/785-842-6816
1801 W 2nd St., Lawrence, KS 66044
청소용품
T.B.S Co. Inc., 913-722-1106
3054 S.24th Street, KC, KS 66103
www.jaytbs.com
청소
Am-Ko Building Maintenance, INC.
(John Lee) 913-980-8888
P.O. Box 2277, Shawnee Mission, KS 66201
GBM, 913-209-3639
12057 Hayes Ln #144., OP, KS 66213
G.Y. Janitorial Service, 913-239-9848
13908 Bradshaw., OP ,KS 66221
HBM INC., 913-321-3303
400 State Ave, KC, KS 66106
Jong's Building Service, 816-651-6007
11717 W. 99th St, OP ,KS 66214
Lee's Janitorial Service, 913-962-0742
7110 Long Ave., Shawnee, KS 66216
Park's Maintenance, 816-243-5669
7512 N. Rhode Ave KC ,MO 64153
World Wide Cleaning Company
913-290-9638
13403 Ballentine Rd, OP, KS 66213
Young's Service Corp., 913-683-0308
2021 Cambridge., Leavenworth ,KS 66048
카운셀링
캔사스 시티 카운셀링 센터
(KC Counseling Center) 916-929-5557
10100 Metcalf Ave, O.P. KS 66212
컨비니언스 스토어
ConerSide Market, 816-254-2221
108 N. Sterling Ave, Sugar Creek, MO 64054
Pop's Quik Shop, 816-483-5095
3402 E. 9th St., KC ,MO 64124
컨설팅
Sook Park, 785-296-3760
1000 S. W. Jackson Ave # 100., Topeka ,KS
태권도
Choon Lee's Academy Of Taekwondo
121 NE. 72nd St., Gladstone, MO
816-439-5909
1975 N. 63rd St., KC ,KS
913-299-5425,
11453 W. 64th St, Shawnee, KS 66203
913-631-1414
Ko's Black Belt Academy
3413 NW. Mill Dr., Blue Springs, MO 64015
816-224-0000
3923 S . Noland, Independence, MO 64055
816-254-0000
818 SW Blue Pkwy, Lee's Summit, MO 64063
816-525-4300,
2045 W. Kansas, Liberty, MO 64068
816-781-3800
11632 W. 135th St, OP, KS 66221

913-897-1300,
10528 Metcalf, OP, KS 66212
913-341-2000
Kim's Taekwondo Pavilion, 913-897-0456
10002 W. 129th St, OP, KS 66213
USA Taekwondo Academy, 913-685-4858,
KMC Taekwondo Academy, 913-205-0232 8841
Glenwood St., OP, KS 66212
Korea America Taekwondo Education Inc.
2127 E 151st Olathe, KS 66062
913-390-0888
12817 W. 87th Street Parkway Lenexa, KS
913-310-9600
22338 W. 66th Street, Shawnee, KS 66226
913-441-6520,
19321 E. US-40 Highway Suite P
Independence, MO 64055
816-795-1090
3715 W. 133rd Street, Leawood, KS 66209
913-498-0910
14877 Metcalf Ave., OP, KS 66223
913-851-1960
Kim Dokhan USA, 816-356-8282
6129 Blueridge Blvd Raytown, MO 64133
Master's Martial Arts Academy
913-681-1022
14868 Metcalf Ave, OP, KS 66223
Pak's Academy Of Taekwondo
411 Pine St, Raymore, MO 64083
816-322-5000
SunYi Traditional Taekwondo Academy
785-266-8662
410 SW 33rd St, Topeka, KS
투자/상담
KJ Consulting
P.O. Box 1775, Lawrence, KS 66044
특수기술
Spartan Laser Inc., 816-353-7700
6501 Hadley, KC, MO 64133
학교/학원/보육
놀이방: ABC Day Care, 913-651-6907
1510 10th Ave., Leavenworth, KS 66048
학습지: KUMON 구몬 영어,수학
8502 W 133rd St, OP, KS, 913-897-1111
151st St. & Nall Ave., 913-681-0400
kumon.com/stanley
골프: 개인교습, 김준배 PGA 프로골퍼,
913-897-3809, 913-558-7997/
www.golfop.com, jbkgo@gmail.com
미술: 아안 아트스쿨, 816-646-1376
newspring78@naver.com
www.artstudioian.com
8841 Glenwood st. O.P. KS 66212
음악: KC 음악학원 (피아노 : 913-272-1177, 바이올
린 913-687-6784)
한글교육 : 캔사스 시티 한국학교 816-469-8110.
8841 Glenwood St. O.P. KS 66212
호텔/모텔/여관
Crown Lodge, 816-353-3000
8500 E State Rte 350, KC, MO 64133
Comfort Inn, 816-632-3909
1803 Comfort Lane, Cameron, MO 64429
Ramada Inn, 620-343-2200
2700 W. 18th Ave., Emporia, KS 66801
Village Inn, 785-242-4433
2520 S. Main St., Ottawa ,KS 66067
화방/사진
Cha Fine Art Studio, 913-962-2118
6656 Charles Dr., Shawnee, MO 66216
Diane Flynn-Yi Portrait, 816-532-8026
14605 Killarney Lane, Smithville, MO 64089
히팅/클럽
Bee Tech Service, 913-980-2464
1106 S Palmer Ln, Olathe, KS 66061
Dokko's Specialty Service, 913-685-0451
12824 Mastin St, OP, KS 66213
기타
Yedang Village LLC, 913-972-6645
13881 138th St. #104, Olathe ,KS 66062

트럼프 대통령이 직권 남용과 의회 방해로 탄핵 가결되다

TRUMP IMPEACHED ON CHARGES OF ABUSE OF POWER, OBSTRUCTION

By LISA MASCARO and MARY CLARE JALONICK Associated Press

미국 하원 의원에 의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며 공식적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선거에 앞서 대선 경쟁자의 비리 조사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종용한 혐의로 탄핵 소추되었으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비협조를 지시한 등의 회 집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 기소되었다.

대통령의 탄핵안은 이제 상원 위원의 가결 절차에 들어간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예상대로 탄핵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그는 의도적으로 선거 과정을 조작하려 했다는 얼룩을 진 채로 재선을 위해 출마해야 할 것이다. Nancy Pelosi 하원 의장은 상원에 탄핵 소추안을 상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언급 자체를 거부하며 상원 내 탄핵 투표가 이루어 지기는 할 것인지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탄핵 투표 결과는 1차 소추안에 230-197-1로, 두 번째 청구에서는 229-198-1표로 두 차례 모두 찬성이 우세하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판은 1월 상원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3분의 2 이상이 탄핵을 찬성해야 한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해 공화당인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가 가결되었으나, 상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실상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Pelosi는 한때 민주당을 당파 탄핵으로 이끌기 꺼려했으나 다수

결과 대변인 자격을 박탈당할 감수를 하고 두 차례의 하원 탄핵 가결을 종결지었다. 탄핵 가결에 투표한 공화당원은 없었으며 민주당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탄핵소추안은 지난 7월 경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에게 2020년 대선 출마자인 Joe Biden을 포함한 민주당원들의 비리 조사를 “부탁”한 혐의가 불거지며 발발되었다. 당시 정계에 낯설던 우크라이나의 Zelenskiy 대통령은 국경에 맞닿아 있는 적대적인 러시아를 대적하며 미국의 군사 후원을 받고자 백악관 방문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미 의회가 승인한 3억 9100만 달러의 군사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백악관은 자금 조달을 지연시켰지만, 의회가 개입하면 트럼프는 결국 군사 원조에 대한 사실을 밝혔다.

소추 의결서는 “대통령이 그의 높은 직권을 남용해 민주 정치를 무패시키고 국민을 기만했으며, 이후 탄핵 조사 과정 중에도 의회의 직무를 방해하기까지 한 미국 역사상 전례없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으로 미루어볼 때 탄핵이 부결되어 그가 의회에 남는다면 그는 민주 정치와 더불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수십 명 이상의 백악관 공무원과 외교관들이 탄핵 청문회에서 몇 시간 동안 증언을 이어나가고 있다. 선서 하에 이루어진 공개 및 비공개 세션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변

호사 Rudy Giuliani를 통해 외교 정책의 “불규칙한 채널”을 사용해 2020년 대선 출마자인 Bidens과 2016년 대선 조작 논란에 대한 조사를 펼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Robert Mueller는 지난 2년 동안 모스크바와 트럼프 캠페인간의 잠재적 관계를 조사했지만 7월에 그의 팀이 트럼프가 러시아와 공모하거나 조정하여 선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Muller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조사 과정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최종적인 판단은 의회에 맡기겠다고 전했다.

WASHINGTON (AP)

President Donald Trump was impeached by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becoming only the third American chief executive to be formally charged under the Constitution's ultimate remedy fo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The historic vote split along party lines Wednesday night, much the way it has divided the nation, over a charge that the 45th president abused the power of his office by enlisting a foreign government to investigate a political rival ahead of the 2020 election. The House then approved a second charge, that he obstructed Congress in its investigation. The articles of impeachment, the political equivalent of an indictment, now go to the

Senate for trial. If Trump is acquitted by the Republican-led chamber, as expected, he still would have to run for reelection carrying the enduring stain of impeachment on his purposely disruptive presidency. House Speaker Nancy Pelosi threw a bit of uncertainty into the process Wednesday night by declining to say when, or even whether, she would send the charges to the Senate. The votes for impeachment were 230-197-1 on the first charge, 229-198-1 on the second.

Democrats led Wednesday night's voting, framed in what many said was their duty to protect the Constitution and uphold the nation's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Republicans stood by their party's leader, who has frequently tested the bounds of civic norms. The trial is expected to begin in January in the Senate, where a vote of two-thirds is necessary for conviction. While Democrats had the majority in the House to impeach Trump, Republicans control the Senate and few if any are expected to diverge from plans to acquit the president ahead of early state election-year primary voting. Pelosi, once reluctant to lead Democrats into a partisan impeachment, gaveled both votes closed, risking her

majority and speakership to follow the effort to its House conclusion. No Republicans voted for impeachment, and Democrats had only slight defections on their side. Voting was conducted manually with ballots, to mark the moment. The House impeachment resolution laid out in stark terms the articles of impeachment against Trump stemming from his July phone call when he asked the Ukrainian president for a "favor" — to announce he was investigating Democrats including potential 2020 rival Joe Biden.

At the time, Zelenskiy, new to politics and government, was seeking a coveted White House visit to show backing from the U.S. as he confronted a hostile Russia at his border. He was also counting on \$391 million in military aid already approved by Congress. The White House delayed the funds, but Trump eventually released the money once Congress intervened.

Narrow in scope but broad in its charges, the impeachment resolution said the president "betrayed the nation by abusing his high office to enlist a foreign power in corrupting democratic elections," and then obstructing Congress' oversight like "no president" in U.S. history.

"President Trump, by such conduct, has demonstrated that he will remain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the Constitution if allowed to remain in office," it said.

Republicans argued that Democrats were impeaching Trump because they can't beat him in

2020.

But Democrats warned the country cannot wait for the next election to decide whether Trump should remain in office because he has shown a pattern of behavior, particularly toward Russia, and will try to corrupt U.S. elections again. The outcome brings the Trump presidency to a milestone moment that has been building almost from the time the New York businessman-turned-reality-TV host unexpectedly won the White House in 2016 amid questions about Russian interference in the U.S. election. Democrats drew from history, the founders and their own experiences, as minorities, women and some immigrants to the U.S. spoke of seeking to honor their oath of office to uphold the Constitution.

The political fallout from the vote will reverberate across an already polarized country with divergent views of Trump's July phone call when he asked Zelenskiy to investigate Democrats in the 2016 election, Biden and Biden's son Hunter, who worked on the board of a gas company in Ukraine while his father was the vice president.

More than a dozen current and former White House officials and diplomats testified for hours in impeachment hearings. The open and closed sessions under oath revealed what one called the "irregular channel" of foreign policy run by Trump's personal lawyer Rudy Giuliani, which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Bidens and alternative theories of 2016 election interference.

The question for lawmakers was whether the revelations amounted to impeachable offenses.

Beyond the impeachments of Andrew Johnson and Bill Clinton, this first impeachment of the 21st century is as much about what the president might do in the future as what he did in the past. The investigation of Richard Nixon ended when he resigned rather than face the House vote over Watergate. Rank and file Democrats said they were willing to lose their jobs to protect the democracy from Trump. Some newly elected freshmen remained in the chamber for hours during the debate.

Top Republicans, including Rep. Devin Nunes on the Intelligence Committee, called the Ukraine probe little more than a poor sequel to special counsel Robert Mueller's investigation of Russian interference in the 2016 election.

Mueller spent two years investigating the potential links between Moscow and the Trump campaign but testified in July that his team could not establish that Trump conspired or coordinated with Russia to throw the election. Mueller did say he could not exonerate Trump of trying to obstruct the investigation, but he left that for Congress to decide. The next day, Trump called Ukraine. Not quite four months later, a week before Christmas, Trump was impeached.

역사적인 문서가 위안부 사건에 대한 일본의 역할을 증명하다

HISTORICAL DOCUMENTS SHOW JAPAN'S ROLE IN WWII SEX SLAVES

By YURI KAGEYAMA Associated Press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이 소위 “위안부” 시스템이라 불리는 성매매 서비스를 정부에 요구했다는 역사적인 문서가 Kyodo News에 의해 검토되었다.

총 23건의 자료는 일본 내각 사무국에 의해 2017년 4월경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집되었으며, 그 중에는 1938년 중국의 일본 영사관에서 도쿄 외무부에 전송했던 기록을 담은 13건의 극비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난 수십년간 위안부 여성 문제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고통스러운 분쟁을 일으키는 원천이었다. 피해 여성들은 한국, 대만, 호주, 필리핀 그리고 일본 등 각국 출신이었다.

1993년 당시 내각부 장관이었던 Yohei Kono 정부 대변인은 “위안부” 여성 문제에 대해 사죄하며 피해 여성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된 이 사건의 일본군 개입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Kyodo신문은 중국 Jinan의 총영사와 외교부 사이의 기록에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된 이후 해당 지역의 성매매가 급격히 상승했으며, 101명의 일본인 게이샤와 110명의 일본인 여성, 그리고 228명의 한국인 여성들이 위안부 시스템에 희생되었다는 기록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적어도 500여명 이상의 여성들이 일본군의 만행에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했다. 또 중국 상동지역에 위치한 Qingdao의 총영사 소재의 기록에 의

하면 일본 제국주의 군인들은 위안부 여성 한 명당 약 70명의 군인을 상대하도록 요구했으며, 해군의 경우 150명의 위안부 여성과 게이샤를 추가로 요구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위안부 피해 여성의 정확한 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역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수 천명 혹은 그 이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위안부 여성의 목적은 일본군인 간 성교나 강간이 발생해 성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었다고 한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시 기록들은 일본과 주변 동양 국가들 간의 관계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배상금을 지불했으며 그들을 위해 기부 모금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진실성 있는 사과에 대한 요구는 단 한 번도 응답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한 치열한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여론은 일본군의 개입 사실에 대해 부정하며 해당 여성들이 성매매에 자진 동참한 것이 아니냐며 반문하기도 한다. 최근 깊어진 한국과 일본 양국간 감정의 골은 올해 초 젊은 “위안부” 여성의 동상을 전시하는 문제 등 여러 논란을 거치며 무역과 관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TOKYO

Japan's army during World War II asked the government to provide one sex slave for every 70 soldiers, according to historical documents reviewed by Kyodo News service that highlight the state role in the so-called "comfort women"

system.

The 23 documents were gathered by Japan's Cabinet Secretariat between April 2017 and March 2019, including 13 classified dispatches from the Japanese consulates in China to the Foreign Ministry in Tokyo dating back to 1938, according to Kyodo.

The sex slaves issue has been a source of a painful disput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e women were from Korea, Taiwan and Australia, the Philippines as well as Japan.

In 1993, then-Chief Cabinet Secretary Yohei Kono, the government spokesman, apologized for the "comfort women" system and acknowledged the Japanese military's involvement in taking women against their will.

The Kyodo reports shows one dispatch from the consul general of Jinan to the foreign minister that said the Japanese invasion had caused a surge in prostitution in the area, with 101 geisha from Japan, 110 comfort women from Japan, and 228 comfort women from Korea.

It says "at least 500 comfort women must be concentrated here by the end of April" for Japanese soldiers.

Presumably, the records imply that the women referred to as "geisha" might have come on their own, as opposed to sex slaves, who were coerced.

Another dispatch from the consul general of Qingdao in Shandong province in China says the Imperial Army asked



for one woman to accommodate every 70 soldiers, while the navy had requested 150 more comfort women and geisha, Kyodo said.

The number of sex slaves is not certain, but historians say they numbered in the tens of thousands or more, and their purpose was to prevent the spread of disease and curtail rapes among soldiers.

Japan's colonization and wartime record continue to strain relations with Asian neighbors. The Japanese government says reparations are settled but it has set up funds to support the victims. That has had mixed results with continued demands for a more thorough apology. Lawsuits are ongoing in South Korea.

Some have denied official Japanese involvement, and think the women were prostitutes who came of their own accord. More recently, the sour relat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have affected trade and tourism and set off other controversies, including one earlier this year over the display of a statue depicting a young "comfort woman."

Follow Yuri Kageyama on Twitter at <https://twitter.com/yurikageyama>

THOUSANDS MARK CHRISTMAS IN WEST BANK TOWN OF BETHLEHEM

By MOHAMMAD DARAGHMEH and PATTY NIEBERG

BETHLEHEM, West Bank (AP) — Thousands of Christian pilgrims on Tuesday flocked to the West Bank town of Bethlehem, celebrating Christmas Eve in the traditional birthplace of Jesus.

Visitors converged on the town's large Christmas tree in Manger Square, near the spot believed to mark Jesus' birthplace. Uniformed Palestinian scouts wearing yellow and gold capes paraded past assembled visitors, the sound of drums and bagpipes filling the cool, clear air. Vendors hawked snacks and holiday gifts, adding to the festive atmosphere. Roger Hoagland, a Christian educator and missionary from Louisville, Kentucky, said he had come to lead a Baptist choir for a fourth time and described his visit as the experience of a lifetime.

"We love this opportunity," he said. "We have 40 people and many of them are from the U.S. and other countries. They come to celebrate the birth of Jesus Christ."

While Bethlehem is in the Palestinian-administered area of the Israeli-occupied West Bank, Israel's imposing separation barrier encloses parts of the city and is a constant reminder of the complex political reality. Most of the Christmas Eve visitors appeared to be local residents, with foreign pilgrims seeming to make up a modest portion of the crowd. Still, the celebrations capped

the most successful year in history for Palestinian tourism, according to Tourism Minister Rula Maayah.

Bethlehem — located just outside of Jerusalem — has invested heavily in tourism. It's built new hotels and tried to diversify itself by offering culinary and cultural destinations in addition to its traditional holy sites.

Maayah estimated that some 15,000 pilgrims were staying overnight in Bethlehem's fully booked hotels this Christmas. Tourists were also staying in other West Bank towns, such as Ramallah and Jericho, in addition to Jerusalem.

In all, she said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the West Bank this year is estimated to reach 3.5 million people, up from 3 million last year. Christmas festivities are typically a boost for Bethlehem's flagging economy and for the Holy Land's dwindling Christian population, which has shrunk over the decades as people fled conflict and searched for better opportunities abroad.

"Our message this year is that Christmas is a message of joy," Maayah said. "But of course we are celebrating Christmas while we are still under occupation. We hope that we will celebrate Christmas joyfully next year with the end of occupation so that we could celebrate like all other nations in our independent country

without occupation."

The Church of the Nativity, where Christians believe Jesus was born, hosted Palestinian dignitaries and pilgrims from around the world for a midnight Mass. The Palestinian president, Mahmoud Abbas, was among those in attendance.

At midday Archbishop Pierbattista Pizzaballa, the head Catholic cleric in the Holy Land, crossed an Israeli army checkpoint from Jerusalem to Bethlehem, where he was greeted by prominent members of Bethlehem's Christian community. He later celebrated Midnight Mass at the Church of Saint Catherine, part of the Church of the Nativity compound, which houses the grotto revered as Jesus' birthplace.

In his homily, Pizzaballa lamented the violence and deep divisions that characterize the modern Holy Land. But he also praised those who pursue what he called the "style of Bethlehem," or example of Jesus.

"Celebrating Christmas also means celebrating those who still have a desire to love mankind and put themselves on the line for it," he said. "Here in the Holy Land, and not only today but every day of the year, there are still many people who celebrate the Christmas of Jesus in this way."



유나이티드 항공이 6월까지 737 맥스의 운행을 중단하다

UNITED PULLS 737 MAX UNTIL JUNE, ADDING TO BOEING WOES

By CATHY BUSSEWITZ and TOM KRISHER

○ 유나이티드 항공이 보잉 737 맥스의 운행을 6월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이어 항공기 개발팀도 1월부터 맥스 생산을 중단 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언제 생산이 재개 될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금요일, 보잉의 동체를 건설하는 Spirit AeroSystems는 맥스의 운행 중단과 일련의 논란이 공급 체에도 손해를 입힐 것을 우려해 맥스를 상대로 한 납품을 중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옆친데 댕친 격으로, 보잉의 새로운 Starliner 캡슐마저 첫 시험 비행 중에 코스를 이탈하며 국제 우주 정거장에 착륙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보잉과 스피릿은 맥스 운행이 재개될 때 까지 관리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두 회사의 소규모 공급 업체는 숙련된 노동자들을 유지하기 어려워 타격이 클 것이라고 Teal Group의 항공 산업 분석가인 Richard Aboulafia는 주장했다. 공급 업체의 숙련된 근로자가 그 자리를 잃으면 생산이 재개 되었을 때 진전이 늦어질 수 있다.

항공사들은 맥스의 운항이 취소되며 늦춰진 스케줄을 처리하느라 이미 애를 먹고있는 듯 보인다. 맥스는 총 346명의 사상자를 낸 두 번의 충돌 사고 이후 운행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이용 가능한 좌석 수는 줄어들고 가격은 상승했다. 분석가에 따르면 맥스의 운행 중단 이후 새로운 항공편이 개설되거나 확장되는 대안도 세워지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이로 인해

앞으로 몇 달 안에 수천 건의 항공편을 취소하게 된다. 이전 계획대로라면 3월부터 정상 운행을 시작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6월달로 미루어진 상태이다. 유나이티드는 현재 14 대의 Max-9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정대로라면 금년 말 경 30 대의 맥스 항공기를 소유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무산된 듯 보인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12월 한 달간 매일 약 75개의 항공편을 취소했고 1월에도 하루 56편을 취소할 예정이다. 항공사는 항공기를 교체하고 예비 비행기를 사용하여 중단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 (Southwest Airlines)과 아메리칸 항공사는 4월 경 맥스를 이용한 운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스 웨스트는 매주 약 175 편의 항공편을 취소하고 있으며 이는 맥스의 운행 중단이 야기한 가장 큰 타격이다. 위 항공사는 이미 운행 중단이 시행되던 시점에 이미 34 대의 맥스 항공기를 보유하고 이를 확장할 계획에 있었다. 연방 항공청은 맥스의 재운행 시기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번 달 말까지 인증 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캔자스 주 위치타에 본사를 둔 Spirit AeroSystems는 보잉측이 올해 말까지 배송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737 맥스에서 발생한 이익은 Spirit의 총 연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회사는 13,500 명의 직원을 두며 캔자스에서 가장 큰 직업 제공자

로 일컬어진다.

Laura Kelly 캔자스 주지사는 맥스의 운행이 곧 재개되지 않으면 정부측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Spirit AeroSystems Holdings Inc.의 지분은 금요일 0.5% 하락했고 보잉의 지분은 1% 하락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식은 금요일 약 0.5% 상승했다.

NEW YORK

United Airlines says the Boeing 737 Max has been pulled from its flight schedule until June, the latest in a string of troubling news plaguing the airplane manufacturer.

The developments follow Boeing's announcement Monday that it would halt Max production in January as it became increasingly clear that it still has many regulatory hurdles to clear. It did not say when production would resume. Also on Friday, Spirit AeroSystems, which builds fuselages for Boeing, said it will end deliveries intended for the Max as damage from the troubled plane begins to ripple outward to suppliers. Adding to the woes, Boeing's new Starliner capsule went off course Friday during its first test flight. It was supposed to go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but will not land there as planned. Boeing and Spirit have the

financial resources to manage through delays to the Max return, but smaller suppliers to both companies — who are attempting to hold onto skilled workers in a tight labor market — may not, said Richard Aboulafia, an aircraft industry analyst at the Teal Group. If companies along the supply chain lose workers, it could slow progress when production eventually resumes.

"If they're not building, how do they get paid? And if they don't get paid, how do they pay their workers? How do they remain in place?" Aboulafia asked. "It's this trickle-down effect that's most concerning, and the biggest question is, you just don't know how deep that goes." Airlines have already been dealing with delayed flight schedules tied to the Max, which was grounded worldwide in March after the second of two crashes of its jet, killing a combined total of 346 people. That has led to fewer available seats and higher prices. The grounding also has stopped airlines from adding routes and expanding, analysts say. United said Friday that the airline expects to cancel thousands of flights in coming months as a result of the grounding. The company had previously planned to return the plane to its flight schedule



in March. United currently has 14 Max-9 aircraft, but it was supposed to have 30 by this time.

United expects to cancel about 75 flights per day this month and 56 flights per day in January. The airline said it has been swapping aircraft and using spare planes to try to minimize disruptions.

Southwest Airlines, which was counting on the Max to update its fleet, has said it will add the plane back into its schedule in April. American Airlines announced the same expectation last week.

Southwest has been canceling about 175 flights each weekday and is among the hardest hit by the Max grounding. The airline had 34 Max planes when they were grounded and expected to be delivered this year.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has not said exactly when the Max would return to the skies, but it has said the certification process would not be completed by the end of this month.

"The system seems to be hit

with a touch of paralysis, and it's all very strange," Aboulafia said. Technical fixes to the Max should have taken just a couple of months, but political and regulatory pressure have contributed delays, he added. "Because of the pressure, they've gone over everything with a fine-tooth comb. Everything has to be investigated and gone over and over again and again." Spirit AeroSystems, based in Wichita, Kansas, said Friday that Boeing asked that deliveries be wound down by the end of the year. Revenue from 737 Max components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Spirit's total annual revenue. The company employs 13,500 people, and is the largest job provider in Kansas' biggest city.

This week, Kansas Gov. Laura Kelly said that the state may have to help pay workers at a company if the planes don't return to the sky soon. Shares of Boeing fell 1% while Spirit AeroSystems Holdings Inc. slid 0.5% Friday. United Airlines' stock was up about 0.5% Friday. ---

COUPANG LAUNCHES GLOBAL RETAIL PARTNER PROGRAM

SEOUL (BUSINESS WIRE) — Coupang, one of the world's largest and fastest-growing ecommerce companies, today announced a global partner program that will enable brands to immediately access a market that ranks the fifth largest in online retail sales. The Korean ecommerce segment is on pace to be the world's third largest, with \$119 billion in annual sales by 2021, behind only China and the U.S. Ecommerce in Korea is on pace to grow by 18% this year, and Coupang is growing more than three times as fast.

Coupang is the leading Korean retailer of U.S.-based brands, including Downy, Lego, Earth Mama, Jarrow, Nature's Way, California Baby, Carters and Gap. It has proven to be an effective on-ramp for international companies that want to launch in Korea. Based on Coupang's success with international sales and market demand for U.S. products, Coupang has strategically established teams and warehouses in the U.S., making sales and distribution of goods in Korea easy. This includes giving brands direct access to top-notch advertising services to market and grow their brands in Korea. Coupang also allows brands to store their goods in Coupang's California warehouse where Coupang will ship the products directly to the customer in Korea with delivery in three days. By partnering with Coupang, brands are instantly introduced to a massive audience of engaged, repeat Customers as millions of consumers purchase from Coupang more than 75 times a year. Retail partners also leverage Korea's

largest privately-owned delivery fleet and most sophisticated logistics network with Coupang, as well as the industry's best Customer service. Coupang consistently delivers 2 million shipments per day as Korea's largest online retailer. It has more than twice the number of monthly active users as its competitors and remains the only ecommerce platform to provide dawn and same-day services at a national scale. Today, 99.3% of Coupang's orders are delivered within one day, often within only a few hours, and a staggering one third of its orders are delivered via Dawn Delivery or Same-Day Delivery, 365 days a year.

"Entering a new international market can be incredibly complicated. Not only do brands have to contend with different regulations, taxes and logistics issues, but they also must ensure that the entire brand experience exceeds Customer expectations," said Jonathan Burks, Senior Director of Global Ecommerce of Coupang. "Coupang has removed all of these hurdles and more. Because Coupang was built as an end-to-end ecommerce platform, there are no outside dependencies. Our technology and innovations make each stage of the sales process seamless, and our obsession with Customer service is legendary. If any brand is looking to enter the Korean market, Coupang provides the best path."

To learn more about how to partner with Coupang, please visit vendorsupport@coupang.com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종결 지을 첫 걸음을 떼다 CHINA WELCOMES PRELIMINARY DEAL IN TRADE WAR IT BLAMES ON US

By KEN MORITSUGU Associated Press

중국이 지난 토요일 미국과의 무역 전쟁 판세를 뒤집는 첫 걸음을 떼며 양국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확립하는데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뉴스 미디어는 이번 계약이 양국간의 불확실한 무역 관계를 단기간이나마 호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양국 모두 타협하려는 의지와 보다 근본적으로 양국간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의했다.

“이번 무역합의를 통해 양국간의 관계가 일단 안정화되면 차후 양국 회담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관세 및 무역 관련 대화가 오갈 수 있을 것”이라며 베이징 대외경제 무역대학의 Tu Xinquan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앞으로 어떤 성과를 일구어 낼지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번 진전을 두고 “미중 1단계 무역합의”라 칭했으며 해당 합의에 의하면 미국은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중국은 미국의 농산품 수입량을 증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중국 관계자들은 이번 9개 조항 합의안이 지적 재산권, 기술 이전, 경제적 서비스, 분쟁 종결 등 다양한 내용을 아우르며 최종 서명이 되기 전 법적 검토와 번역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 아침 시간이었던 베이징에서 개최된 심야 뉴스 컨퍼런스에서 관계자들은 미국이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보다는 인하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중국도 유사한 관세 인하 정책을 제시했다고 관계자가 발표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중국은 이번 무역합의가 중국 경제 시장을 여는 기회이며 나아가 중국의 경제 개혁의 시작이라고 정의했다. 미국을 비롯한 다양

한 국가들의 수준 높은 수출품이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많은 중국인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통상부 장관 무역 협상가인 Wang Shouwen은 주장했다.

통상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지는 경제 전문가 Bai Ming은 정부 소유의 Global Times 신문에 미국의 관세 인하는 긍정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이번 미국의 태세는 옳은 방향으로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른 기사에서 Global Times는 이번 합의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양국간의 협의가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은 그간 무역 전쟁으로 휘청거리던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 20여달간 무역 전쟁에 갇혀 있었고 양국간 팽팽한 긴장감 때문에 호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다”며 국제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명한 Global Times의 기사는 말했다. 또 해당 신문은 양국이 무역 전쟁을 다시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양국간의 이해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두 국가간 인내와 협상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BEIJING

China expressed cautious optimism Saturday about a first-step trade agreement that dials down a trade war it blames the U.S. for starting. Chinese experts and news media joined government officials in saying the deal would reduce uncertainty for companies, at least in the short

term. They remained cautious, saying both sides will have to show a willingness to compromise to resolve the mor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m.

"It at least stabilizes the situation and lays a foundation for the next round of trade talks or canceling additional tariffs in the future," said Tu Xinquan,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in Beijing. "I cannot predict what achievement can be made during the future talks."

The two countries announced a "Phase 1" agreement Friday under which the U.S. will reduce tariffs and China will buy more U.S. farm products. Chinese officials said the nine-chapter text, which includes intellectual property, technology transfer, financial services and dispute settlement, has to undergo legal and translation review before it can be signed.

At a late night news conference in Beijing, timed to coincide with the U.S. morning, the officials said the United States would begin phasing out tariffs on Chinese imports, rather than continue to raise them. The deal was announced just two days before higher tariffs were set to kick in. China would make similar tariff cuts, the officials said, but they gave no details.

China portrayed the agreement as in line with the opening up of its economy and the deepening of its economic reforms. Increased imports of high-quality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elsewhere will "meet the growing needs of the people for a better life," said Wang Shouwen, a deputy commerce minister and trade negotiator.

Bai Ming, an economic expert described as being close to the commerce ministry, told the state-owned Global Times newspaper that the U.S. tariff cuts demonstrate a positive attitude.

In a separate piece, the Global Times called the agreement a new beginning. It pointed to stock market gains in recent days as word of a possible deal emerged. The dispute between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had rattled markets and depressed global growth.

"China and the U.S. have been locked in a trade war for about 20 months and neither side could overwhelm the other to recklessly impose its own will on the other," said the newspaper, which is known for its nationalistic views.

It added, though, that both countries are capable of prolonging the trade war, and that resolving their differences will require patient negotiations.

MINISO X MARVEL이 6 개 국제 도시의 랜드마크를 빛내다 MINISO X MARVEL SIMULTANEOUSLY BRIGHTENED UP THE LANDMARKS AT SIX INTERNATIONAL METROPOLIS

지난 19일 미니소(MINISO)와 마블 (Marvel)의 협업 브랜드인 MINISO x Marvel 가 뉴욕, 상하이, 서울, 방콕, 자카르타 그리고 마드리드 등 세계 국제 도시의 랜드마크에서 새롭게 선보이게 될 제품 홍보 영상을 상영했다. 미국의 톰슨 로이터, 마드리드의 칼라오 극장, 그리고 상하이 글로벌 하버 트윈타워와 같은 주요 랜드마크의 LED 스크린을 통해 MINISO가 Marvel과 협력해 세계 각국에 있는 미니소와 마블 팬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내용의 영상이었다. 해당 제품에는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 맨, 아이언 맨, 헐크와 같은 영웅들이 그려진 장난감, 생활용품, 문구류, 선물 및 모자 등이 있다. 전 세계 1000 개 이상의 매장에서 300 개 이상의 상품이 출시되었으며, 미니소는 20 여 개 국가 및 지역에 MINISO x Marvel IP 매장을 개설하여 IP 제품 시리즈의 판매 계획 및 시나리오 발표에 주력하고 있다. 이 제품은 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 역대 매장 판매 기록을 달성해 내고 있다. 미니소 상품 센터의 부사장인 Ada Dou는 마블이 미니소와 협력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미니소가 높은 수준의 제품 설계 및 품질 관리를 통해 전세계 시장을 겨냥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업을 통해 두 브랜드는 대상 고객층에 대한 접근성을 얻게 된다. “마블과 미니소는 미묘한 보완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마블은 여성 고객층을 확장할 수 있으며 미니소는 더 많은 남성 소비자를 유치 할 수 있습니다”고 Ada는 말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식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는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미니소는 라이선스 상품에 대한 편견을 뒤집었다. 새로운 IP 제품 생태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우수한 디자인의 저렴한 제품을 제공하여 점차 가정 용품 소매업체에서 세련된 IP 상점으로의 전환을 실현했다. 가정 용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미니소는 일반 가정 용품점에서 대한 대중의 견해를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삶의 미학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을 미묘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어쩌면 언젠가 우리는 미니소 매장의 글로벌 디자이너가 만든 뛰어난 디자인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는데 익숙해 질 지도 모른다.

SEOUL (BUSINESS WIRE)

The MINISO x Marvel promotion video was shown on several famous landmarks in New York, Shanghai, Seoul, Bangkok, Jakarta and Madrid. Several LED screens in such places, such as the Thomson Reuters in America, the Callao Lights in Madrid and the Twin Towers in Shanghai Global Harbor, played the promotion video simultaneously for releasing the signal that MINISO has cooperated with Marvel to deliver brand new co-branded products for global fans and consumers who love Marvel and MINISO.

The new series of products jointly launched by MINISO in cooperation with Marvel En-

tertainment worldwide, cover toys, daily necessities, stationery, gifts and hats, which feature heroes like Captain America, Spider Man, Iron Man and Hulk. Over 300 SKUs has been launched in more than 1000 stores in the world. In addition, MINISO also opened the MINISO x Marvel IP stores in more than 20 countries and regions,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sales planning and scenario presentation of IP product series. The co-branded products are popular among fans, creating new record of store sales.

Ms Ada Dou, the executive vice president of MINISO Commodity Center, said that the reason why Marvel decided to cooperate with us was that MINISO has retail terminals covering the global markets with high standards of product design and quality control at a low price. The collaboration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for both parties to reach their target audience. “Marvel and MINISO has formed a subtle complementary relationship. Marvel can open up the female market, while MINISO can attract more male consumers,” said Ada.

By sticking to the principle of officially licensing with affordable price, MINISO overturns what people have always known about licensing products. It developed a brand-new ecological IP product model to offer consumers low-cost products with good design, gradually realizing the transformation from household goods retailer to fashionable IP store.

MINISO, the household goods retailer, is believed to slowly changing the views of many people on the general household goods store, and it is also subtly changing consumers' thoughts on the aesthetics of life. Perhaps one day, we will be accustomed to buying the cost-effective products that elaborately designed by global designers in the MINISO stores around the places we work or live.



(Photo: Business Wire)

도쿄 올림픽 개최 비용, 120억 달러? TOKYO OLYMPICS SAY COSTS \$12.6B; AUDIT REPORT SAYS MUCH MORE

By STEPHEN WADE and MARI YAMAGUCHI Associated Press

도쿄 올림픽 주최측은 금요일 내년 올림픽 경기를 개최하기 위해 약 135억 엔(약 120억 달러)가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최측은 강력한 후원과 티켓 판매로 인해 3억 달러의 기금이 모였으나 예상 지출액은 1년 전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의 국가 감사위원회(National Audit Board)는 177페이지의 국회용 보고서에서 내년 올림픽은 주최측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감사에 따르면 올림픽 관련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약 97억 달러(1.06조 엔)이 있으며, 도쿄시도 이전 올림픽 관련 프로젝트에 76억 달러(810조엔)를 추가로 지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Yuriko Koike 총재는 당시 지출은 “올림픽 경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장애인 올림픽 선수들을 위한 전용 시설 건설비용, 자원 봉사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광고 및 관광 계획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고 한다.

올림픽 주최측은 이러한 비용 중 많은 부분이 올림픽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1년 전에도 비슷한 감사 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의 보고서는 경기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기초하여 이러한 활동 비용을 분류하지 않았다”고 주최측은 연합 통신에 전했다.

일본의 유명한 경제 신문 Nikkei와 Daily Asahi도 올림픽 비용을 예측했는데, 그들 역시 경기 개최에 사용되는 지출 금액이 주최측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 지출은 약 3조 엔, 즉 약 280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보고서는 더 많은 투명성을 촉구했다. 올림픽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출되는 유일한 비 공공 자금은 사비로 충당된 55억 달러의 운영비가 전부이다. 이 예산의 수익은 스폰서십, 티켓 판매 및 마케팅에서 발생하며 일부는 국제 올림픽위원회의 기여금으로 이뤄진다. 나머지는 정부, 도쿄시 및 기타 정부 기관의 납세자가 지불하는 금액이다.

2013년 도쿄 올림픽이 확정되었을 때 입찰위원회는 총 개최 비용이 73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주최측은 이번 주 일본에서 올림픽 티켓에 대한 수요가 공급의 약 20배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일부 국민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본인들의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올림픽의 티켓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올림픽 비용을 추적하는 것은 어디까지 올림픽 개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IOC와 지역 주최측은 일반적으로 낮은 금액을 제시한다. 실제로 IOC는 주최측이 기존 장소를 사용하거나 임시 장소를 구축함으로써 수십억 달러를 절감한 방법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도쿄 올림픽은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개최되며,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장애인 올림픽이 이어진다.

국제 올림픽위원회는 그동안 올림픽 비용 상승에 대한 비판을 받으며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경기장을 건설하도록 압박을 준다는 논

란에 휩싸였다가, 지난 몇 년 동안 기존 장소의 재사용을 강조하고 개최 도시들에게 경기 개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올림픽 개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OKYO

Tokyo Olympic organizers said Friday they are spending 1.35 trillion Japanese yen — about \$12.6 billion — to stage next year's games. Organizers said the expenditure is unchanged from a year ago, although robust sponsorship and ticket sales have generated a contingency fund of an extra \$300 million.

However, Japan's National Audit Board, in a 177-page report prepared for the national legislature, said next year's Olympics will cost much more than organizers say.

The audit lists an added \$9.7 billion (1.06 trillion yen) it says are Olympic-related costs that have not been included.

In addition, the city of Tokyo has previously said it would spend another \$7.4 billion (810 trillion yen) on Olympic-related projects. Tokyo Governor Yuriko Koike said at the time the spending was “for projects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to the games.”

She said this included building barrier-free facilities for Paralympic athletes, training programs for volunteers, and

advertising and tourism plans. Organizers argue that many of these costs are not tied directly to the Olympics.

The audit board, however, came up with similar findings a year ago.

“As in the previous year, their report did not classify the cost of these items and activities based on their direct relevance to the games,” Tokyo organizers said in a statement to the Associated Press. “It aggregated a wide range of projects that could be seen as contributing to the games, including those that were implemented without regard to the games.”

The respected Japanese financial newspaper Nikkei and the daily Asahi also calculated Olympic costs. They said spending was far above what organizers contend. They also placed overall spending at about 3 trillion yen, or about \$28 billion.

The audit board report urged more transparency.

The only non-public money being spent to fund the Olympics is from the privately funded, \$5.6 billion operating budget. Revenue for this budget comes from sponsorships, ticket sales, and marketing — and from a contribution from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The rest is taxpayer money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the city of Tokyo, and other

government bodies. When Tokyo was awarded the Olympics in 2013, the bid committee projected total costs would be \$7.3 billion.

Organizers also reported this week that demand in Japan for Olympic tickets is about 20 times over supply. This has led to criticism on social media by Japanese upset they cannot get tickets to an Olympics they are funding through their taxes.

Tracking Olympic costs is always disputed amid arguments over what are — and what are not — Olympic expenditures. The IOC and local organizers usually claim a lower figure. In fact, the IOC has repeatedly emphasized how it has cut billions in Tokyo by having organizers use existing venues, or build temporary venues.

The Tokyo Olympics open on July 24 and close Aug. 9. They are followed by the Paralympics on Aug. 25 through Sept. 6.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has been criticized for the rising costs of the Olympics, and the perception it forces host cities to build "white elephant" sports venues. In the last several years it has tried to re-brand itself, emphasizing the use of existing venues and giving host cities choices in how they organize.



SPORTING KC ACQUIRES STRIKER PULIDA FROM C.D. GUADALAJARA

By DAVE SKRETTA AP Sports Writer

KANSAS CITY, Kan.

Sporting Kansas City fulfilled its need for an elite striker Tuesday by swinging a deal with Mexican club C.D. Guadalajara for Alan Pulido, who signed a four-year contract with the Major League Soccer club after it paid a club-record transfer fee.

The 28-year-old Pulido has scored more than 100 goals for Guadalajara and the Mexican national team. He's been part of five domestic championships, helped his club to the CONCACAF Champions League title last year, and finished atop the Liga MX scoring list with 12 goals during the Apertura season this past fall.

The club did not disclose the exact transfer fee, though it did acknowledge it was "multimillion dollars."

Sporting KC is coming off a season in which it failed to make the MLS playoffs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a decade. A big reason was its inability to score — top striker Kristzian Nemeth had just eight goals and the club did not renew his option.

Pulido should provide some immediate help.

Born and raised in Ciudad Victoria, Mexico, he came through the heralded Tigres UANL youth academy before breaking into the first team as an 18-year-old in 2009. Pulido helped lead Tigres to the North American SuperLiga title that season, and later scored the decisive goal as Tigres won its

first league championship in nearly 30 years in 2011.

Pulido briefly played with Greek club Levadiakos before transferring to powerhouse Olympiacos, where he scored six goals during the 2015-16 season and helped the club win the Super League title. He also competed in the UEFA Europa League and the UEFA Champions League with the Greek club.

He returned to Mexico and C.D. Guadalajara in 2016 to begin another successful run that caught the attention of numerous MLS clubs. Ultimately, it was Sporting KC that won the bidding with a massive transfer fee.

The deal came one day after Sporting KC signed 26-year-old forward Khiry Shelton to a three-year deal that includes an option for 2023. Shelton returns to the MLS club after spending last season with German club SC Paderborn 07.

"Khiry is an experienced player who we are excited to bring back to the club," Vermes said. "As the 2020 season approaches, we will continue to strengthen our roster with signings on all three lines of the field."



'PARASITE,' 'BOMBSHELL' GET A BOOST IN SAG NOMINATIONS

By JAKE COYLE AP Film Writer

NEW YORK (AP)

“Parasite” scored a best ensemble nod and both “The Irishman” and “Once Upon a Time ... in Hollywood” solidified their Oscar favorite status in nominations announced Wednesday for the 26th Screen Actors Guild Awards.

The SAG Awards are one of the most closely watched Academy Awards bellwethers because, historically, a best ensemble nomination from the actors is usually a prerequisite for any best-picture contender’s resume. Actors make up the largest percentage of the film academy, giving them the greatest influence of any branch.

The actors guild, as expected, nominated both Martin Scorsese’s Netflix opus and Quentin Tarantino’s Hollywood fable for best ensemble, along with a pair of individual acting nods: Al Pacino and Joe Pesci for “The Irishman” and Leonardo DiCaprio and Brad Pitt for “Once Upon a Time.” Each film also added stunt ensemble nominations.

But the guild’s other choices were less predictable. The SAGs rounded out best ensemble with the casts of Taika Waititi’s Nazi Germany coming-of-age tale “Jojo Rabbit,” Jay Roach’s Fox News docudrama “Bombshell” and Bong Joon Ho’s class satire “Parasite.” “Parasite,” the much-praised

Korean film, became just the second foreign language film to be nominated for the SAGs’ top award. Only “Life Is Beautiful” managed to do it before, in 1997. Already one of the year’s most critically acclaimed films, “Parasite” looks assured of a rare best-picture nomination for a foreign language film. Notably missing out on the best ensemble nomination was Noah Baumbach’s divorce drama “Marriage Story,” which on Monday led the Golden Globe nominations with six nods. It still came away with acting nominations for its leads, Adam Driver and Johansson, and Laura Dern for best female actor in a supporting role. Johansson was nominated in that category, as well, for her performance in “Jojo Rabbit.” Recently, a SAG ensemble nomination hasn’t been quite as vital for a best-picture winner at the Oscars. The last two winners, “Green Book” and “The Shape of Water,” managed the feat without a nod for the screen actors’ top award. Before that, it had been two decades since the SAG Awards didn’t help predict the eventual best-picture winner.

Nothing got more of a boost from the actors guild than “Bombshell,” which tied “The Irishman” and “Once Upon a Time ... in Hollywood” with a co-leading four nomina-

tions. Critical reception has been mixed for “Bombshell,” a starry dramatization about the culture of sexual harassment at Fox News. It opens in theaters Friday. But along with the significant ensemble nod, the actors guild nominated its three stars: Charlize Theron (lead actress), Margot Robbie and Nicole Kidman. Kidman also scored a nod for her performance in HBO’s “Big Little Lies.”

Along with Theron and Johansson, the nominees for best performance by a female actor in a leading role were: Cynthia Erivo (“Harriet”), Lupita Nyong’o (“Us”) and Renee Zellweger (“Judy”). Those picks omitted Saoirse Ronan (“Little Women”) and Awkwafina (“The Farewell”).

Joining Driver and DiCaprio in best actor were Christian Bale (“Ford v Ferrari”), Taron Egerton (“Rocketman”) and Joaquin Phoenix (“Joker”). Among those left out were Antonio Banderas (“Pain and Glory”), Robert De Niro (“The Irishman”), Eddie Murphy (“Dolemite Is My Name”) and Adam Sandler (“Uncut Gems”). A number of prominent contenders were shut out, including Sam Mendes’ WWI thriller “1917,” Greta Gerwig’s Louisa May Alcott adaptation “Little Women,” Lulu Wang’s family drama “The Farewell,” Fernan-

do Meirelles’ Vatican drama “The Two Popes” and Rian Johnson’s star-studded whodunit “Knives Out.”

Tom Hanks (“A Beautiful Day in the Neighborhood”) and Jamie Foxx (“Just Mercy”) were nominated for best male actor in a supporting role. Jennifer Lopez (“Hustlers”), looking more and more like a lock for her first Oscar nomination, also joined the best female in a supporting role category. Usually, about four out of five individual SAG nominees go on to land an Oscar nomination. In television categories, Apple TV-Plus’ recently launched “The Morning Show” scored three nods (Jennifer Aniston, Steve Carell, Billy Crudup), while HBO’s “Succession” was surprisingly overlooked. In best drama series ensemble, the actors nominated the casts of “Big Little Lies,” “The Crown,” “Game of Thrones,” “The Handmaid’s Tale” and “Stranger Things.” Comedy ensemble nods went to “Barry,” “Fleabag,” “The Kominsky Method” and “The Marvelous Mrs. Maisel.”

The SAG Awards will be presented Jan. 19 and broadcast live on TNT and TBS.

Follow AP Film Writer Jake Coyle on Twitter at: <http://twitter.com/jakecoyleAP>

30-PLUS YEARS OF 'GARFIELD' COMIC STRIPS TO SELL AT AUCTION

By JAMIE STENGLE Associated Press

Cartoonist Jim Davis is offering up more than 11,000 "Garfield" comic strips hand-drawn on paper in an auction that will stretch into the coming years, with at least a couple of strips featuring the always-hungry orange cat with a sardonic sense of humor available weekly. "There are just so many, and it was such a daunting task to figure what to do with them so that they could be out there where people enjoy them too," said Davis, creator of the comic strip that appears in newspapers around the world and has spawned TV shows, movies

and books. Dallas-based Heritage Auctions began offering up the strips in August. The auction house is selling two daily strips each week, along with longer Sunday strips being offered during the large-scale auctions throughout the year. The strips span from the launch of "Garfield" in 1978 to 2011, when Davis began drawing the strip digitally. He says he still draws it by hand but now it's with a stylus on a tablet instead of on paper with a pencil, pen and brush. Indiana-based Davis says that over the years he gave some

strips to family, friends and staff, while others are on display at museums, including the Smithsonian Institution, and he even tried selling them on his website for a few years. But he kept most of them, he says, storing them in a fireproof, climate-controlled vault. The auction, he said, "was just a logical thing to do with an awful lot of comic strips and an opportunity to allow not just collectors but a lot of the fans over the years to have access to the strips as well without me having to send them out one at a time." Brian Wiedman, a comic grader at Heritage, says the daily strips are currently selling on average from around \$500 to \$700, and the longer Sunday strips are selling for \$1,500 to \$3,000. He said the value is often

determined by "who is doing what, when and where." "So Garfield eating lasagna, which is a trademark for him, that would be considered kind of one of the more expensive ones," Wiedman said. Also adding value, he said, is an appearance by the strip's other characters, which include Garfield's owner Jon Arbuckle and Odie, his dog. Caitlin McGurk, whose museum has about 20 "Garfield" strips, likes the idea of the auction and noted that that the number of paper strips he's auctioning would be a difficult for a library to store. Davis, who is 74, said he has no plans to retire from drawing the comic featuring the orange feline known for his dislike of Mondays and diets. "It's fun. It's just fun."

캔사스 시티 종교단체 주소록

캔사스 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9130 Pflumm Rd., Lenexa
korean1481@gmail.com
http://www.kckcatholic.org

105 SE 421st Rd.
Warrensburg 64093
660-429-6511 / 660-864-3638 (c)
krwpreach@hanmail.net
www.cmkbc.org

레반월스감리교회
담임목사: 최진호 (Jin Ho Choi)
1526 10th Ave.
Leavenworth 66048
913-682-7007/913-705-0604(c)
vic223@naver.com

베델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아브라함
(Abraham Kim)
9595 W95th St, OP
913-617-3987/913-940-9188(c)
Shalom4abraham@yahoo.com

레반월스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한규 (Hankyu Kim)
1000 N 10th St.
Leavenworth 66048
913-682-3766
mauifullgospel@yahoo.com

캔사스뉴비전교회
Kansas New Vision Church of the Nazarene
담임목사: 박근영
(Rev. GeunYoung Park)
8200 W. 96th Street, OP 66212
816-315-4174
knvc2008@gmail.com
www.ksnvc.com
facebook.com/KansasNewV
sionChurchoftheNazarene

로랜스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성환
445 Lyon St., Lawrence 66044
443-910-2732(c)
www.lawrencechurch.org

캔사스 뉴헤이븐 SDA 한인교회
Kansas New Haven Church
담임목사: 정한철 (Harold Kim)
8714 Antioch Rd, OP 66212
전화: 913-730-0190
facebook.com/kcsdanewhaven

미주리중앙침례교회
Central Missouri Baptist
Church
담임목사: 김래원
(Raymond Raewon Kim)

캔사스선교교회
Kansas Mission Church
담임목사: Rev. Yohan Lee 이요한
김에반 (Evan Kim, 영어부)
8841 Glenwood St., OP 66212
913-648-9191/ 339-440-2696(c)
www.kansasmission.org
facebook.com/KMCCHURCH

캔사스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1424 S. 55th St. KCK
714-313-6259
kansasfgc@gmail.com
www.kcmusa.org

캔사스안디옥나사렛교회
담임목사: 이은철 (Eun C. Lee)
2737 S. 42nd St., KCK 66106
913-831-6779 / 913-206-6631(c)
Tim0921@gmail.com
http://kansasantioch.org

캔사스시티임마누엘감리교회
담임목사: 허장 (Jang Hur)
4900 Antioch Rd., Merriam 66203
913-631-1004 / 913-206-6880(c)
hjang212hanmail.net

캔사스시티한인침례교회
Kansas City Korean Baptist
Church

담임목사: Insung Jeon (전 인 성)
3817 N. Wayne Ave, KCMO 64116
816-452-1906

캔사스영락교회
담임목사: 이춘석 (Chun Suk Lee)
3000 S 55th St, KCK 66106
913-265-9030
myloveisrael@gmail.com
www.ksyoungnak.org

캔사스우리교회
담임목사: 장현희 (Hyunhee Chang)
10100 Metcalf Ave. OP 66212
913-299-7246
kwoorich@gmail.com
www.kwoori.org

캔사스 한인 중앙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김다위 (Dawe Kim)
9400 Nall Ave, OP 66207
913-649-2488/816-304-2113(c)
centralkoreanchurch@gmail.
com
facebook.com/ckumc

캔사스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수철(Soo C. Shin)
4505 Gibbs Rd., KCK 66106
913-369-5959/816-560-8619
sooshin@msn.com

캔사스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 하병진 (Byung J, Ha)
15902 Midland Dr.
Shawnee 66203
913-962-9125/913-406-0586(c)
habyongjin@yahoo.com

캔사스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강일경(Kyle Y. Kang)
2002 S 51st St.
Kansas City, KS 66106
913-236-7636
kpckan@gmail.com
www.kpck.org

토피카 한인침례교회
담임목사: 임성택 (Seoung T. Lim)
735 SW Oakley Ave.
Topeka 66606
785-235-8738/859-556-3555(c)
samuel3280@gmail.com

캔사스 새생명 교회
담임목사: 최안성 (Ansung Choe)
2611 S. 31th St
Kansas City, KS 66106
816-800-1985(c)/504-875-0737
choeansung@hotmail.com
kansasnewlifechurch.org

무료 광고란은 모든 독자들께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터입니다. 생일, 돌잔치, 부고, 중고 물건 매매 등 모든 알리를 편하게 알려주시면 무료 한줄광고로 귀하께 실어드립니다. 편하게 애용해주시고 보내실 곳은 kim@ckkoreanjournal.com 입니다.

FREE classified is a FREE marketplace for all KCKJ readers. Please send your notices for birthdays, anniversaries, obituaries, used items for sale, etc. Submit your announcements via email to kim@ckkoreanjournal.com

구인,구직 / JOBS / Help Wanted

장영준 종합치과 STATE AVENUE DENTAL OFFICE에서 함께 일할 OFFICE STAFF을 모집합니다. 업무내용: 카운터업무, 보험빌링 및 전화업무, X-RAY촬영, 치과보조 자격조건: 한국어/영어 동시 구사 가능, 경력자 우대, 신입환영 지원방법: YJCDDS@GMAIL.COM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STATE AVENUE DENTAL OFFICE IS LOOKING FOR OFFICE STAFF. RESPONSIBILITIES: FRONT DESK, INSURANCE BILLING, PHONE CALL, X-RAY, DENTAL ASSISTANT REQUIREMENT: BILINGUAL (KOREAN/ENGLISH), PLEASE APPLY WITH YOUR RESUME TO YJCDDS@GMAIL.COM

PART TIME/FULL TIME SERVERS WANTED CHOGA KOREAN RESTAURANT IN OVERLAND PARK 913-385-2151

내니 겸 집안일 도와주실 분 구합니다. 시간당 17불 (풀타임 시 월 3천불 수준, 잘 하시면 추가 지급), 업무 시간은 상호 협의 (아이 학교에 있는 동안 파트타임 가능), 월-금 근무지는 127TH & PFLUMM 근처입니다. 913-206-0302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GOLDEN BEAUTY SUPPLY 함께 일하실 착실하신 분을 찾습니다 (Full time/ part time) 연락처 816-353-1866 (Kelly)

SUSHI KO & ROK BBQ 에서 헤드서버와 한식주방장님 구합니다. 그리고 적은금액 투자하고 하시고 일하실분 (일식, 한식쉐프, 메니저, 써버 경험 있는분) GOOD PAY, GOOD TIP 785-991-0081

PART TIME/FULL TIME POSITION AT BEAUTY SUPPLY STORE 뷰티써플라이 스토어에서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일할 분을 찾습니다. Located in Independence or Lee Summit 근무지: 미조리 인디펜던스 또는 리 써밋 연락처: 913-488-8239

Korean-Asian Restaurant in Downtonwn/Crossroads hiring servers! Mila 720.366.8925

SUSHI KO LAWRENCE 에서 서버 하실분 구합니다 GOOD PAY, GOOD TIP 785-991-0081

가사도우미 구함 오버랜드 파크 남쪽, 135번가와 메카프 애브뉴 근처 일주일에 두 번 4시-7시 사이에 간단한 저녁 식사 준비 도와주실 가사도우미 구합니다. 연락처 301-395-5868

Gangnam Korean Restaurant에서 서버 하실분을 구합니다. Full time/Part time (무/경력자 환영) 913-383-8888 ask for Chase.

Maru Sushi 에서 서버 하실분을 구합니다. 913-258-5879

의류수선 경력자 구합니다. North Kansas City (I-29, NW 64th St)에 위치한 Alteration shop 에서 일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816-584-0845

VIVA FASHION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성실하게 오랫동안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KANSAS CITY / OLATHE / INDEPENDENCE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ALEX or JINNY 913 - 287 - 8008)

에서 말아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Hiring for immediate position. Call/전화하십시오 816 - 861 - 2223 Dollar and TNS Beauty (2928 Prospect Ave. KC, MO)

캔사스 경로대학에서 댄스, 체조, 취미활동, 건강 강의 등으로 재능을 기부해주시는 분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913-236-763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are an authorized METROPCS dealer in KCMO Area. We have over 20 STORES. I am currently looking for Assistant Operation Managers/ Store Managers/ Sales Rep. Need to be able to speak English. Also, looking for anyone that would like to open a MetroPCS STORE, or purchase opened STORES. 우리는 KCMO 지역의 METROPCS 공인 대리점입니다. 우리는 20 개 이상의 점포가 있습니다. 현재 Assistant Operation Managers / 매장 관리자 / 영업 담당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Metro PCS 매장을 열거나 열 저장소를 구입하고자하는 사람을 찾고. Ben Kim, General Manager - Tomorrow Mobile Cell - 512.906.6106 1622 Central Ave., Kansas City, KS 66102

Janitorial Services Company. 사무직0명, 매니저0명. 영어 가능자.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일단 전화로 상담해 보세요. Call (913)980-3043

eMaids of KANSAS CITY HAS HOME/OFFICE CLEANER POSITIONS OPEN! We pay between \$11.00 - \$15.00 per hour (Plus Tips) after training. Plus we pay weekly. Must present valid ID / Social Security Card. Contact us by emailing eMaidsJOBSKC@gmail.com or calling 913-871-5755.

Help Wanted Star Beauty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정있으신분 찾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거나 관심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주세요. (Full Time/Part-Time position available) 816-931-4747 ask for John or Josh

J & L Liquor store 에서 일할분을 찾습니다 언제든지 가게에 들리시든지 전화 또는 text message 로 연락주세요 10406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913)406-8956

업소 매매 / BUSINESS FOR SALE

RETAIL STORE FOR RENT 10413&10415 BLUE RIDGE BLVD KC, MO 64134 MOVE IN READY! FOR MORE INFORMATION CALL JIN KIM 860-478-7035

서비스 / SERVICES

Jo's Auto Body Shop We buy used and junk cars and trucks! Mon-Sat 9am-7pm, 3333 Stadium Dr. KC, MO 64128, 816-923-0330 / 816-686-4046 jeongpanjo@gmail.com Pan Joe Jeong

Prepare & Enrich 예비부부 결혼 전 교육 (Premarital Education by English/Korean) 주제: 예비부부의 마음 준비 (Mind Preparation for A Happier Marital Life) 대상: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서로의 마음을 함께 준비 하길 원하는 예비부부 (Any couple who want to be mentally well prepared for their marriage) 시간: 매주 1회 1시간씩 (기간: 최대 12주) Weekly for 12 weeks at most. 인도: 미드웨스턴 상담학과 교수 (A seminary professor of counseling) 장소: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코엔 & 마이어 센터 (Kohen & Myers Center, Midwestern Seminary) 문의: 816-414-3830 (낮시간 통화/부재시 음성 메시지 녹음)

부모 써포트 그룹(Support Group)*
 주제: 자녀 교육 및 양육
 대상: 부모로서 자녀 교육과 양육에
 관련한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
 누고 싶으신 분들(자녀 연령별로 모
 임)
 시간: 매주 1회 1시간씩 (기간: 12주)
 인도: 미드웨스턴 상담학과 교수
 장소: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코엔&
 마이어 센터
 문의: 816-414-3830 (낮시간 통화/
 부재시 음성 메시지 녹음)
 *써포트 그룹이란 5명 정도의 소그룹
 으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함께
 편안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정서적인 힘이 되어주는 모임입니다.

**갱년기 써포트 그룹(Support
 Group)***
 주제: 갱년기 관련 감정 변화
 대상: 갱년기 관련 감정 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성별
 따로 모임)
 시간: 매주 1회 1시간씩 (기간: 12주)
 인도: 미드웨스턴 상담학과 교수
 장소: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코엔&
 마이어 센터
 문의: 816-414-3830 (낮시간 통화/
 부재시 음성 메시지 녹음)
 *써포트 그룹이란 5명 정도의 소그룹
 으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함께
 편안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정서적인 힘이 되어주는 모임입니다.

시장 / Market

하숙 / BOARDING

캔사스 민박 및 하숙-방5개, 화장실
 3개, 거실, 페미리룸, 다이닝룸이 있
 으며 넓은 뒷마당이 있습니다.
 연락처: 이메일 10sweetpota-
 to24@gmail.coM

학원 / INSTRUCTORS

캔사스 한국어 요가 개인/단체 강습 :
 장보혜(200RYT 수료)
 초보자 환영/수업문의 : 816-868-
 4271

Everything English Academy-in
 home tutoring for Overland Park
 and South Kansas City
 June Narber (MA Education
 UMKC, MTID, NCSU)
 junenarber@yahoo.com,

(816) 469-6673
 www.junenarber.com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Kansas City
 Korean Language Institute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KS 66212 캔사스 선교교회 선
 교관내 교장: 이명희
 Principle: Myounghee Lee
 이메일: leesaltkr73@gmail.com
 전화번호: 816-469-8110

쿠몬 학원 Kumon Academy
 대상: 3살 부터 18 세까지 Ages:
 3-18
 과목: 영어 및 수학
 Subjects: English & Math
 * 학생 자신이 공부하는 방법을 터
 득하며 자신감을 동시에 증진시켜
 줌. Students learn how to study
 and improve learning skills at
 the same time enhance self-con-
 fidence.
 * 세계에서 가장 큰 과외학습학원 (
 현재 4000개 학원에서 삼십만명의
 수강생이 등록. The biggest ex-
 tra-curricular learning academy
 in the world (30 million students
 are currently registered at the
 4000 Academies).
 * 무료 diagnostic test 및 무료 오
 리엔 테이션 Free Diagnostic tests
 and complementary orienta-
 tion.
 *전화 913 897-1111

New Art Class 미술 수업안내
 pre-k~ 12th, 성인반 모집
 다년간 입시지도 및 대학강의 경력
 의 박
 사출신 선생님과 전문 일러스트레이
 터 작가 선생님의 체계적인 미술수업
 상담문의
 816-646-1376/816-294-4283
 artstudioianusa@gmail.com

Golf 개인교습 : 김준배 PGA 전문 골
 프 코치(PGA certified instructor)-
 오버랜드 파크와 샌앤드류 골프장
 의 수석 코치, 캔사스(Midwest PGA
 Section)의 유일한 PGA 인증 전문
 골프코치.(개인교습문의 913-558-
 7997)
 Golf Private Lesson: Mr.JB KIM.
 *US KID TOP 50 Teacher Award/
 TPI Golf Mechanic LEVEL 2 Cer-
 tified Teacher www.golfop.com,
 jbkkgolf@gmail.com,
 913-897-3809, 913-558-7997

NLI에서 “Study Help” 프로그램
 은 운영합니다. 초등/중등/고등학
 생들의 학교숙제를 돕고, 영어학습
 (Reading, Speaking, Listening,
 Writing)을 도와드립니다. (문의:
 913-449-2233)

NLI에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합니다. 중국어, 인도어, 스페인어, 독
 일어, 포르투갈어(Chinese, Hindi,
 Spanish, German, Portuguese)를
 가르칩니다. (문의: 913-449-2233)

NLI에서 교과목 과외합니다. Math,
 Geometry, Algebra, Calculus,
 Science, Chemistry,
 Physics, Biology
 문의: 913-449-2233

사회 / COMMUNITY

캔사스시티 시니어선교회(SMK)
 (회장: 송지영) 913-220-7927
 (총무: 우인균 목사) 816-518-6766
 woinkyun@gmail.com

한인단체장 목록 회장 안경호
 캔사스 시티 한인회
 Korean-American Society of
 G.K.C. 913-486-5836
 7800 Shawnee Mission Pkwy
 Mission, KS 66202

캔사스 상록회 (회장 정영로)
 Korean Senior Citizen Society
 6800 Alden St, Shawnee KS
 816-351-9045

캔사스 한인 상공회
 회장 문경환
 (913)251-7871
 kaykmun@gmail.com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Kansas City
 Korean Language Institute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KS 66212 캔사스 선교교회 선
 교관내 교장: 이명희
 Principle: Myounghee Lee
 이메일: leesaltkr73@gmail.com
 전화번호: 816-469-8110

캔사스 시티 목회자 협의회
 (회장 이은철 목사)
 2737 S. 42nd St., KCK 66106
 913-831-6779
 Tim0921@gmail.com

KCKJ 알림

* KCKJ와 함께 광고해 주세요.
 - 귀한 캔사스 한인 들의 업소를 특별가로
 광고해 드립니다.
 - 문의 913-802-2005 ,
 kim@kckoreanjournal.com



원고 모집
 원고를 모집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kckj는 한인 여러분의 소리를 적극적
 으로 담고자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여러분의 글들을 500단어 내
 외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감사
 합니다.
 (지면상 내용과 길이는 편집될 수 있
 습니다.)
 kim@kckoreanjournal.com 로 제
 출해주세요
 Essay Submission
 Do you have a talent for
 writing? KCKJ is accepting
 essays (about 500 words) from
 our readers. (We reserve right
 to edit) Please submit to kim@
 kckoreanjournal.com

캔사스 한인 체육회 (회장 김대중)
 Korean American Sports Council
 of Kansas 913-205-0232
 djkimtkd@gmail.com

캔사스 장애인체육회장 박순현
 Tel: 312-206-3380
 email: yongpyung@hotmail.
 com

캔사스시티연합성가단
 Korean Choir of the Greater
 Kansas City

캔사스 한국 문화회관 건립 협회
 8409 W. 129th Ter
 Overland Park, KS 66213

캔사스 장로 성가단
 (단장: 김영렬 장로)913-593-7776
 (총무: 배규태 장로) 816-333-128



장영준 종합치과

STATE AVENUE DENTAL OFFICE



www.kcfastbraces.com
fastbraceskansascity.com



임플란트 고민, 교정 고민 이제 그만!

부담없이 활짝 웃으세요!

진료문의 및 안내

913-299-8554

저녁시간/토요일도 진료합니다!

20

20년 이상 경력과
노하우로 안전하고
빠르게 치료합니다



FASTBRACES
약 5개월 안으로
치아교정 완료



한국 최고급
임플란트를
저렴하게 제공

장영준 종합치과
In House Saving Plan

보험이 없으신 분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맞춤형 멤버십 플랜을
제공합니다.

진료 과목

임플란트, 교정, 충치, 치아미백,
신경치료, 스케일링, 틀니,
크라운, 브릿지, 소아 치과,
사랑니 발치, 브래킷 교정

진료 시간

평일 8am-7pm
토요일 8am-1pm

주소

6708 State Avenue
Kansas City, KS
66102